

2016년 상고사 토론회

한국 상고사의 쟁점
낙랑군의 위치

2016.12.9(금) 13:00~18: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상고사 토론회 일정

일 정	시 간	내 용
【개회식】 사회 :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13:00~13:30	등 록
	13: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영사 :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기념촬영
【발표】 사회 : 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14:0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창종 (유금와당박물관) 와당으로 본 낙랑군
	14:5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석구 (한발대)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
15:40~16:00 휴 식		
【토론】 사회 : 박경철 (강남대)	16: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기대 (인하대)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환영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6
• 발표문		
외당으로 본 낙랑군		11
유창종 (유금외당박물관)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		43
공석구 (한밭대)		
• 토론문		
‘외당으로 본 낙랑군’에 대한 논평		71
복기대 (인하대)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에 대한 논평		73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재단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다섯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계와 사회의 고조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재단은 작년부터 한국상고사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횟수를 늘려 3월과 6월, 9월에 이어 오늘이 네 번째 개최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중국의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군과 관련된 것입니다. 와당이라는 고고학적 자료와 해석을 통해서 유창중 유금와당박물관 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며, 중국의 역사지도집에 표현된 낙랑군의 위치에 대하여 공석구 한밭대 교수님께서 비판해 주실 예정입니다.

낙랑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으나 이 중 위치에 관한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재단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에 대응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상고사토론회는 이를 위해 학계와 사회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를 포함 모두 여섯 차례의 토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었고,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조선의 많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고 풀어야 할 과제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제 하나하나에 대한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의문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논쟁은 건강한 학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가 부족한 고조선사 연구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바와 같이 따듯한 응원과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하시고 토론을 맡아 주신 유창중, 공석구, 복기대, 심백강 선생님, 그리고 흔쾌히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신 박경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의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발표문

- **외당으로 본 낙랑군**
유창종 (유금와당박물관)
-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
공석구 (한밭대)

와당으로 본 낙랑군¹⁾

유창종 (유금외당박물관)

- I. 기와 검사의 고대사 연구
- II. 와당문화의 전파와 상징성
- III. 낙랑군의 위치와 사서 기록, 학설
- IV. 낙랑군 평양설의 논거와 맹점
- V. 낙랑군 요서설의 논거와 맹점
- VI. 평양 출토 와당으로 본 낙랑군과 낙랑국
- VII. 낙랑군의 이동과 교군
- VIII. 한군현과 고조선의 정통성 계승
- IX. 몇 가지 제안

I. 기와 검사의 고대사 연구

1978년 8월 충주지청 검사 시절 만나게 된 탐평리 출토 6엽 연화문 와당이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다. 이 와당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매력 때문에 와당의 수집과 연구에 빠져들게 되었다. 향토문화를 함께 공부하며 답사를 다니던 일행들은 같은 해 9월 예성(藥城)이라 불리던 고려 충주성의 연화문신방석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예성동호회(후에 예성문화연구회로 변경)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출토되는 기와를 통해 송선사지, 김생사지를 발견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봉황리

1) 본고는 필자가 최근 출간한 '와당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쟁점들'(경인문화사, 2016)의 내용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뒤 수정, 보완한 것이다.

햇골산에서 후에 보물 1401호로 지정된 삼국시대의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을 발견하였다. 한편 한반도의 중앙 지역으로서의 독특한 문화가 있음을 감지하고 ‘중원문화권’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처럼 연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주장을 학계와 정부가 받아들여 2007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까지 설치되었다. 또 조선 시대 관아인 청녕헌淸寧軒과 제금당製錦堂을 군청 건물로 사용하던 당시 중원군의 청사 이전과 관아 복원을 주장하고, 충주시립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하여 모두 실현되었다.

이런 향토문화 보호와 연구 활동을 하다가 아주 엉뚱한 역사적 가설에 이르게 되었다. 진흥왕이 충주와 같은 요충지를 점령하고 순수비를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찾아다니던 진흥왕 순수비는 엉뚱한 기회에 고구려비가 되어 나타났다. 필자가 의정부지청으로 전보된 것을 기념하여 1979년 2월 24일 회원들과 환송 답사를 나갔다가 고구려비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자들까지도 진흥왕순수비로 생각하였으나 비문의 해석 결과 고구려비로 확인되고, 같은 해에 국보 205호로 지정되었다. <충주 고구려비> 때문에 예성동호회가 유명해지고, 1980년 7월호 월간조선에 ‘기와 검사 유창종’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는 바람에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9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시절 국보 274호이던 <별황자 총통(別黃字銃筒)>이 가짜임을 밝혀내는 수사를 성공시켜 국보 지정을 취소하게 한 사건도 충주 탐평리 출토 와당과의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와당과의 만남으로, 진짜 국보도 찾고 가짜 국보도 찾는 별난 경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와당 수장가 이우치 이사오선생이 소장품의 절반을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설치된 이우치 기증 와전실 때문에 자극받아서 2002년 당시까지 수집했던 한, 중, 일의 와당 187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우치 기증실과 나란히 <유창종 기증실>이 설치되었고, <한국기와학회>의 창설을 제안하여 2003년의 창립 총회 이래 지금까지 명예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일본에 남아 있던 절반의 이우치 컬렉션을 2005년 사재를 털어 환수해오는 한편 한, 중, 일의 와당을 다시 수집한 뒤 2008년 <유금와당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수집 와당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2009년 <동아시아 와당문화>(미술문화)를 출간한 다음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학과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와당문화 교류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고 10여 편의 와당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고대사와 고고학, 미술사의 연구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매우 유사하다. 몇 개의 자료만을 가지고 추리력을 동원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이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30년의 검사 경력을 활용하여 수사하듯 와당의 수집과 연구를 하다가 한국 고대사의 여

러 논쟁에 관하여도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게 되었다. 이미 40년 가까이 한, 중, 일 3국의 고대 와당문화를 비교, 연구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의 고대사와 문화교류를 남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류, 비주류 사학자 그리고 재야 사학자와 강단 사학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낙랑군의 위치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정리하여 최근에 <와당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쟁점들>(경인문화사, 2016)을 출간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찾아보려는 오랜 소망 때문에 기본적 입장에서는 비주류 사학자들과 뜻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점에서 비주류 사학자들의 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거나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 또 어떤 부분에 관하여는 주류 사학자들의 학설에 대하여도 결론이 다르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게 되었다. 양측의 학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의견이나 비판으로 활용되어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I. 와당문화의 전파와 상징성

1. 와당문화의 출현과 전파

와당은 3천년 전 중국의 서주西周(기원전 1046-기원전 771년)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서주시대에는 반원 형태의 무문無紋과 중환문重環紋의 와당으로 시작하였으나, 춘추시대(기원전 770-기원전 475년)를 거쳐 전국시대(기원전 475-기원전 221년)에 이르러 진秦, 제齊, 연燕의 세 나라에서 서로 다른 문양의 반원 와당(반와당)과 원형 와당(원와당)이 제작되면서 중국의 제 1차 와당문화 전성기를 맞는다. 진나라는 동물문, 제나라는 수목문, 연나라는 도철문饗饗紋이 와당의 주종 문양이다.

중국 대륙을 처음 통일한 진(기원전 221-기원전 206)과 한(기원전 206-기원후 220년)대에 이르러 제 2차 와당문화 전성기가 오고, 이때가 중국 와당의 최고 전성시기이다. 이 시기에 반와당은 사라지고 원와당이 유행한다. 진시황 때에는 와당왕이라고 불리는 대형의 기문夔紋과 기봉문夔鳳紋 반원와당이 유명하고, 서한 시기에는 문자와당이 크게 유행한다. 위진남북

조부터 연화문, 귀면문 와당이 성행한다.

서한의 한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을 거쳐 한반도에 중국의 와당문화가 처음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한이나 위진남북조의 시기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와당문화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에 영향을 미쳤다. 운문,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등이 유행하였다. 신라는 통일 이후 와당문화가 크게 발전하여 아시아의 제3차 와당문화 전성기를 맞는다.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588에 건립이 시작된 비조사飛鳥寺의 일본 최초 와당인 연화문와당의 제작에 백제 와박사瓦博士들이 참여하였다. 일본의 초기 와당들은 거의 모두 백제는 물론 고구려와 신라의 와당문화가 전파된 결과이다.

2. 와당의 문화적 상징성

1) 동양 건축문화의 상징

와당(막새)은 동양의 고급 건축물인 기와집의 지붕에 사용된 건축 부속품이다. 처마에 매달린 와당은 일반 기와와는 달리 와당 표면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넓고 평평한 암기와(평기와)의 처마 끝에는 암막새(평와당平瓦當)가 매달리고, 반원통형의 수기와(통기와)의 처마 끝에는 수막새(통와당筒瓦當)가 매달려 있다. 동양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와당이 제작되어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와당처럼 3천년 가까이 세 나라에서 계속 사용되고, 또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유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와당 하면, 동양의 건축물인 기와집을 연상하게 되고,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건축문화의 상징물 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2) 왕권과 국력의 상징

고대 어느 지역에 집권자가 나타나고 권력 기반과 국력이 안정되면, 자신의 통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가급적 더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집무를 하였다. 바로 황제나 왕 그리고 봉건제후들이 사용하던 왕궁이다. 왕궁 이외에 통치자가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도 위세 과시를 위한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불교가 국교처럼 신봉되던 동양 3국에서 불교의 사찰이 이런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통치자가 사망한 뒤에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의 무덤이 조성되었다. 많은 인력 동원, 다량의 물자 수요,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한 무덤은 중앙집권적 왕권이 상당한 정도로 확립되고, 국가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렵다.

왕궁과 왕 출입의 사찰 그리고 왕릉 모두가 왕권과 국력의 상징물이다. 처음에는 왕궁이나 왕이 출입하는 사찰, 왕릉에만 와당을 제작하여 치장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왕권을 대행하는 지방의 관서, 왕의 친인척이나 귀족의 기와집에도 와당이 사용되었다.

와당은 왕권의 상징물이어서 어느 나라의 거주민이나 이주민이 많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와당 사용 국가의 관서에 준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3) 문화적 특성과 수준의 상징

와당의 문양은 제작된 시대와 민족, 지역적 특성을 지닌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와당의 문양을 통해서 제작 당시의 정치, 경제, 사상, 종교, 전설, 생활 등 문화 전반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또 와당의 문양은 국가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이 매우 현저해서,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아주 쉽게 제작 국가와 지역, 시대를 판별할 수 있다. 발굴 현장에서는 다른 출토 유물에 대해 시대 판정의 준거가 되고 있다.

와당이 통치권자의 위세 과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왕궁이나 사찰 그리고 왕릉의 건축에는 그 나라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와당은 예술적 재능이 크게 발휘되어 표현되는 공예품이기 때문에, 와당은 바로 그 나라의 예술적 수준의 상징이 될 수 밖에 없다.

4) 문화 교류의 상징

인접한 국가와 지역, 시대의 와당 문양을 비교해보면 서로 모방하거나 영향을 받았는지도 쉽게 확인이 된다. 와당 문양이 상호 영향을 미쳤다면, 사실은 와당 문양에 반영되어 있던 각 국가와 시대의 문화가 서로 교류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다. 와당을 통해서 고대 국가, 시대 간에 언제 그리고 어떤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5) 장소적 고정성

와당은 사용될 건축물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의 와요지瓦窯地에서 제작된다. 건축물의 지붕 등에 부착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나 와당이 파손되거나 용도가 폐기된 후에도 사용되던 건물의 터나 그 인근 지하에 파묻혀 있거나 지상에 남아 있다.

다른 유물들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원래의 거주 지역에서 제작된 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 사용하거나 지역 간의 교류에 의하여 다른 곳에서 옮겨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러나 와당은 위와 같은 장소적 고정성 때문에 거의 모두 출토지가 바로 제작지이고 사용지이다. 또 와당은 왕권의 상징물이면서 장소적 고정성까지 지니고 있어서, 와당이 출토되면 바로 그 출토지에 그 와당 사용 국가의 관서나 그에 준하는 기관과 관련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Ⅲ. 낙랑군의 위치와 사서 기록, 학설

중국과 한국 사서의 기록 중 어느 것은 요서, 요동설을 지지하는 내용이고, 어느 것은 평양설을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서로 상이하다.

중국 『한서漢書』에는 ‘동으로 갈석을 넘어 현도, 낙랑을 세웠다(東過礪石以玄菟、樂浪爲郡)’고 기록하고, 『후한서後漢書』 「광무제본기光武帝本紀」 주석註釋에 ‘낙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樂浪郡, 故朝鮮國也, 在遙東)’라고 기재되어 있다. 『요사』 「지리지」 등도 낙랑군이 요동 혹은 요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북위 시대 역도원酈道元の 『수경주水經注』 이래 『당서』, 『신당서』 「고구려전」 그리고 한국의 『삼국사기』 등은 모두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하고 있다.

요서, 요동, 평양 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단지 낙랑군의 지역적 특성이나 지명을 설명해 놓은 기록도 있다. 중국의 『사기색은史記索隱』은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에서 전하기를, 낙랑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하는 곳이다 (樂浪遂城縣有礪石山, 長城所起)라고 기록하여, 낙랑의 위치에 대하여 수성현, 갈석산, 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통전通典』에서는 ‘갈석산은 한漢 낙랑군 수성현에 있으며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 주석에서 신찬臣瓚은 ‘왕검성은 낙랑군에 있는데, 패수의 동쪽이다. 이것이 험독이다.’라고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학자들은 낙랑군의 위치에 관하여 크게 나누어 **평양설**과 **요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Ⅳ. 낙랑군 평양설의 논거와 맹점

1. 낙랑군 평양설의 논거와 맹점

낙랑군이 처음부터 멸망시까지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설치되었다는 평양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평양 일대에서 출토되는 낙랑군 관련 유물과 유적들이다.

그러나 평양설은 중국의 초기 사서로서 신빙성이 높은 『한서』와 『후한서』의 기록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요서, 요동설을 취하는 것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맹점을 가진다.

또 평양설은, 『태강지리지』가 낙랑군의 위치 징표로 제시한 수성현, 갈석산과 장성 동쪽 끝이 평양 근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초기의 평양설은 황해도 수안군을 수성현으로 비정하고, 이곳의 요동산에 진의 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²⁾ 그런데 이 장성은 동호와 고조선의 공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이 먼저 축성하였고, 진이 연을 정복한 뒤에 연의 장성을 보완하여 축성한 것이다. 연과 진이 장성을 축조할 때, 황해도 수안군은 고조선의 수도인 평양보다도 서남부에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초기의 평양설에 의해 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군 부근이라고 한다면, 연과 진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서남쪽이면서 고조선의 영토 한 복판인 황해도에 들어와서 축성 공사를 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평양에 도움을 두고 있던 고조선은 평양 인근을 지나서 멀지 않은 황해도까지 연과 진의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장기간 머물면서 장성을 축조하는 것을 구경만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수안군에 있다는 장성은 한의 장성일 수도 없다. 한이 왕검성을 점령하고 낙랑군을 설치하였는데, 자기 영토 안에 장성을 축조하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서』에는 ‘동으로 갈석을 넘어 현도, 낙랑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만일 황해도 수안군에 있는 산이 갈석산이라면, 이 산을 넘어 서북쪽에 낙랑군(평양)이 위치하게 되어 사서의 기록과 정반대의 방향이 된다.

평양설의 이런 맹점과 모순이 드러나게 되자, 평양설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낙랑군에 대한 3개의 위치 징표를 제시하고 있는 태강지리지의 기록 내용은 후에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학계의 과거 통설이었던 평양설을 바탕으로, 중국사회과학원이 간행한

2) 이덕일,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역사의 아침, 2009, 79-80쪽 참조

『중국역사지도집』과 『간명중국역사지도집』의 ‘전국 시기 전도戰國時期全圖’에 청천강 부위를 만반한滿潘汗이라 표시하면서 연의 장성이 이곳까지 표시되었고, ‘진 시기 전도秦時期全圖’에는, 청천강을 패수泮水로 표시한 다음, 진장성이 청천강을 남쪽으로 넘어, 청천강과 대동강 중간 부위의 해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그려 놓고 있다.(지도1) 평양의 서남쪽인 황해도는 고조선의 영토임이 너무 자명하여 평양의 서북쪽 지점까지만 장성 표시를 해놓았다. ‘서한 시기 전도西漢時期全圖’에는 패수로 표기해놓은 청천강까지만 장성이 내려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³⁾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중국역사지도집』과 『간명중국역사지도집』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급히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도 1〉 진(秦)의 장성(출처: 『简明中国历史地图集』)

2. 왕검성 평양설의 맹점

낙랑군 평양설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의 위치에 관하여 소위 왕검성 평양설과 왕검성 이동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조선이 건국 초기부터 멸망시까지 계속 대동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있었다는 평양설은, 당시 고조선 강역내에서의 문화발전의 순서와 역행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가지고 검토해보면, 고조선의 강역 중에서 요서 지방의 문화가 제일 먼저 개화되어 초기 청동기시대에 진입한 뒤 비파형동검과 다뉴문경으로 대표되는 중기 청동기시대로 발전하였고, 이 단계에서 청동기문화가 요동으로 확산되고, 점차 한반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처럼 청동기 문화가 가장 늦게 전파된 평양 지역에서 고조

3) 中国社会科学院主办(譚其驤 主編), 『简明中国历史地图集』, 中国地图出版社, 1991, 13-14쪽 ‘戰國時期全圖’, 15-16쪽 ‘秦時期全圖’, 17-18쪽 ‘西漢時期全圖’.

선이 형성, 건국되어 이곳에 수도를 두고, 차츰 요동, 요서 지역으로 강역을 확장해 갔다는 것은 문화 발전의 전과 과정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설이다.

또 초기 고조선의 강역이 한반도 이외에 요서와 요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대동강 유역의 평양은 수도로서 고조선의 강역 중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지역이다.

왕검성 평양설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극히 일부의 학자들만 집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은 원래 요동에 있던 왕검성이 연나라 소왕 때 진개의 침공으로 부득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는 소위 왕검성 이동설을 취하고 있다.

V. 낙랑군 요서설의 논거와 맹점

1. 낙랑군 요서설의 논거와 맹점

낙랑군이 처음 설치시부터 소멸시까지 요서, 요동에 있었다는 요서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중국의 초기 사서의 기록이다. 중국 『한서』에 ‘동으로 갈석을 넘어 현도, 낙랑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후한서』 「광무제본기」 주석에 ‘낙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서들은 낙랑군 설치시와 가까운 초기의 사서로서 평양설을 기록한 당서 이후의 사서들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낙랑군의 위치에 대하여 수성현, 갈석산, 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태강지리지의 기록 내용도 요서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요서설은 평양에서 출토되는 낙랑군 관련 유물, 유적들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맹점을 가진다. 요서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평양 출토의 낙랑군 관련 유물, 유적들이 위조되었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이동되어 왔을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또 제작시기나 제작 주체에 관해 문제를 제기 하며 증거 가치를 부인하고 있다.

2. 왕검성 요서설의 맹점

낙랑군 요서설은 왕검성 요서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왕검성 요서설은 고조선이 건국 시

부터 한무제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서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었다는 견해이며 다음과 같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

(진시황의 동순東巡)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북대하구秦皇島市北戴河區에 가면 진시황의 행궁行宮 터가 있고, 그곳에서 도로를 이용해 동북쪽으로 47킬로미터 정도를 더 가면 요령성 수중현 장자리綏中縣牆子里에 갈석 해안碣石海岸이 있다.(지도2) 이 해안에도 진시황의 행궁 터가 있다.



〈지도 2〉 고조선의 강역 관련 지역

두 행궁터에서는 서안 진시황릉 등의 것과 유사한 대형 기문夔紋반원와당(사진1)과 대형 기봉문夔鳳紋반원와당(사진2)이 출토되었다. 대형 기문반원와당은 직경이 51-54센티미터, 높이가 39센티미터, 부착된 숫기와의 몸통 길이가 67-73센티미터에 이르는 대형 와당이다. 대형 기봉문반원와당도 직경이 56센티미터에 이른다. 수중현 갈석 해안의 석비지石碑地 행궁터에서 20여 개의 파편이 출토되어 와당 5개가 복원되었으며, 북대하에서는 파편이 몇 점 출토되어 와당 1개가 복원되었다.

와당왕瓦當王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 와당들은 진시황과 관련된 건축물의 특수한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서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많아야 모두 30 여점 가까이 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이 대형 와당들의 대량 출토로 위 두 행궁터가 바로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기재된 진시황 순행의 ‘갈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사진1. 대형 기문반원막새, 진(秦), 지름51~54cm, 수중현 석비지(石碑地)유적 출토(출처:『收藏』)

사진2. 대형 기봉문반원막새, 진(秦), 지름56cm, 수중현 석비지(石碑地)유적 출토(출처:『收藏』)

대형 기문과 기봉문 반원와당 외에 직경이 42센티미터의 대형 조개·구름문 원와당(사진 3) 4점이 북대하에서 출토되어 건물의 규모와 위용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대형 와당은 당시로서는 대형 기문, 기봉문 반원와당과 함께 황제나 왕의 건축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크기이다. 일반 와당은 대부분 직경이 10-20센티미터이다.

역시 진나라에 특유한 직경 18.8센티미터의 소형 기문반원와당(사진4)도 북대하와 수중현 갈석 해안에서 모두 소량씩 출토되었다. 직경 16-19.1센티미터의 조개·구름문와당도 다량으로 두 곳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출토 와당의 85퍼센트 가량이 이런 문양과 크기의 것이다. 북대하 유적에서만도 일반 크기의 조개·구름문 반원와당이 44점 출토되었고, 원형와당도 1점 출토되었다. 구름문에 조개 문양이 함께 묘사된 조개·구름문양 와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된 일이 없는 이곳 특유의 진나라 와당이다. 조개 문양이 없는 구름문와당도 출토되고 그 밖에도 몇 종류의 다른 문양 와당이 출토되었다.



사진3.조개·구름문수막새, 진(秦),지름42cm,북대하유적출토(출처:『收藏』)

사진4.소형 기문반원막새, 진(秦),지름18.8cm,수중현석비지(石碑地)유적출토(출처:『收藏』)

와당 이외에 진나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심전空心磚, 도정陶井, 도분陶盆 등도 출토되고, 대형 건물지에 사용되었을 초석도 다량으로 발굴되었다. 수중현 갈석 해안 행궁지 중심 지역에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된 목욕 시설도 발굴되었다.

수중현 갈석 해안 석비지石碑地의 행궁지는 15만평방미터에 이르고, 그 동서와 북쪽으로 1내지 4킬로미터 지점에 각 10만평방미터 규모 2개소, 각 2만평방미터와 1만평방미터 그리고 1125평방미터 규모의 건물터가 확인되어서, 갈석 해안 주변의 건물군이 모두 6개소이다. 북대하 행궁도 중심 유적은 6만평방미터에 이르고, 그 주변에서 각 2만평방미터 정도의 유적이 2개소가 확인되는 등 동서 연해 40여킬로미터 주변에 모두 8개소의 건물 유적지가 확인되었다.

위 조개·구름문와당과 구름문와당은 두 행궁터 뿐 아니라, 북대하와 수중현 갈석 해안 주변과 두 행궁터 사이에서 발굴된 다른 건물지에서도 출토된 것으로 보아서, 두 행궁터는 같은 시대의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장기적으로 체류한 대규모 시설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갈석 해안 서북쪽의 건물지에서는 병기류도 출토된 것으로 보아 행궁을 지키는 군사용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갈석 해안과 주변 건물지가 38만평방미터, 북대하 주변이 10만평방미터, 모두 48만평방미터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시설군의 건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진시황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규모의 행궁이다.⁴⁾ 진이세도 이곳을 순행하였다.

(한무제의 동순)

『한서漢書』「무제본기武帝本紀」에 의하면, 한무제도 원봉元封 원년(기원전 110년)에 갈석을 다녀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중현 갈석 해안 행궁터에서는 서한의 와당이 분명한 ‘천추만세’명 와당(사진5)도 5점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행궁은 진한秦漢행궁으로 불린다. 북대하에서도 ‘천추만세’명 와당 1점이 출토되었다. 두 행궁터 모두 진시황, 진이세 때의 행궁의 퇴적층을 기초로 한무제의 행궁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한무제의 행궁이 훨씬 규모가 작다.⁵⁾

4) 劉鐵峰, 「東臨碣石有遺篇—秦皇島地區出土的秦漢瓦當」, 『收藏』, 總第183期, 2008, 39-43쪽; 王雪農, 「从秦皇島地區秦漢建築遺址看秦始皇求仙活動」,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北京燕山出版社, 2000, 74-96쪽; 沈章興, 「金山嘴秦宮遺址的發現和發掘」,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北京燕山出版社, 2000, 97-109쪽 참조.

5) 王雪農, 앞의 논문, 2000, 85쪽.



사진5. '천추만세'명 수막새, 서한(西漢), 지름19cm, 수중현 석비지(石碑地)유적 출토(출처:『收藏』)

한무제는 이곳을 순행한 다음 해인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기원전 108년 패망시켰다.

(왕검성 요서설의 맹점)

왕검성이 계속 요서의 진황도시에 있었다는 설을 따르게 되면, 진시황이 기원전 215년, 진이세가 기원전 209년에 진황도를 순행할 때, 국경인 갈석산을 지나 고조선의 영토까지 깊숙이 들어가 순행을 한 것이 된다. 갈석산에서 진황도시 북대하까지는 동북쪽으로 현재의 도로로 44킬로미터가 되고, 북대하에서 다시 동북쪽으로 47킬로미터를 가야 수중현 갈석 해안에 도착한다. 갈석산에서 수중현 갈석 해안까지는 약 9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제법 먼 거리다.

또 이 견해에 따르면, 한무제도 기원전 110년에 국경인 갈석산을 지나서 적대국인 위만조선의 영토 한 북판인 진황도시 북대하와 요령성 수중현 갈석 해안까지 들어와 순행을 한 후, 다음 해에 위만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특히 진황도시 북대하의 유적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도읍지 궁궐 유적으로 믿고 있는 견해⁶⁾에 의하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왕들이 진시황, 진이세, 한무제 등에게 궁궐을 내주고 머물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진과 대치하는 고조선의 수도가 인접한 지역에 있었다면, 아무리 담대한 진시황이나 진이세도 진황도시와 수중현까지 순행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왕검성 요동설도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왕검성이 진황도시라는 견해는 물론이고, 보정시 등 진황도시보다 서쪽 방향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에서도, 진시황이나 진이세가 고조선의 수도 지역을 지나서 진황도와 수중현까지 동쪽으로 순행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6)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하』, 만권당, 2015, (상)70-71쪽.

(왕검성 요서설의 두 가지 오해)

왕검성 요서설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순행하였다는 ‘갈석’을 ‘갈석산’으로 오해하였다.

『사기』와 『한서』에서 진시황, 진이세, 한무제가 순행한 장소를 설명하면서 ‘갈석 까지 가서’ (之礪石, 到礪石), ‘갈석을 돌아다니고(游礪石)’, ‘동쪽으로 갈석을 순행하고(東巡礪石)’, ‘북으로 갈석에 이르러(北至礪石)’, ‘바다를 동쪽으로 순행하여 갈석에 이르러(東巡海上至礪石)’ 등 모두 ‘갈석’으로 기록하고 있지, ‘갈석산’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또 산에 올랐다(登山)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 기록을 ‘갈석산’에 ‘올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북위의 문성제文成帝도 458년 이 부근을 순행했는데, 『위서』에서는 ‘갈석산에 올라 창해를 바라보았다(登礪石山, 觀滄海)’라고 ‘갈석산’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북제서』에도 북제의 문선제文宣帝의 순행과 관련하여 ‘갈석산에 올라 바다에 임하고(登礪石山, 臨滄海)’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진시황이나 한무제의 동순 기록 내용과 명백히 구별된다. 사서에 거듭해서 ‘갈석’이라고만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올랐다(登)’고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착오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둘째는, 첫 번째 오해의 연장선상에서, 진시황과 한무제가 ‘갈석산까지만’ 순행하였다고 오해하였다.

비주류 사학자들도 진시황, 진이세, 한무제의 진황도 순행을 자신들의 저서에서 상세히 설명⁷⁾하면서도 위와 같이 요서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황제들이 순행한 장소가 갈석산까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진 시황제, 진 이세황제, 서한 무제 등이 국경 지역을 순행하면서 동북쪽으로 가장 멀리 도달했던 곳은 난하 하류 동부 유역에 있는 갈석산 지역이었다’⁸⁾고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해 때문에 진시황과 한무제 등이 이 지역을 순행할 때, 지금의 진황도시 인근에 아직도 기자조선 또는 고조선(위만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착각한 것이다.⁹⁾

왕검성 요서설을 취하는 어느 비주류 학자는 ‘고조선의 서부 국경 지대’지도(지도3)에서 난하와 갈석산을 고조선의 서부 국경 지역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러나 이들 황제들은 갈석산까지만 순행한 것이 아니고, 갈석산을 동북쪽으로 지나서 진황도시 북대하(지도 3의 *1)를 거친

7)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226-229쪽; 이덕일, 앞의 책, 2009, 85-91쪽.

8)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242쪽.

9)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269쪽.

다음 요령성 수중현 갈석 해안(지도 3의 *2)까지 순행하였다. 이미 진황도시 북대하와 요령성 수중현 갈석까지 진, 한의 영토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황도시나 그 인근에 고조선(위만조선)의 수도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 황제가 수중현 갈석 해안까지 순행하였다면, 고조선과의 국경은 이보다 훨씬 동북쪽 지역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고조선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까지만 순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 3) 고조선의 서부 국경지대(출처 : 윤내현, 『고조선연구(상)』¹⁰⁾)

중국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갈석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위행궁 시설군의 발굴 이후로는 진시황과 진이세, 한무제가 진황도 북대하와 수중현 갈석 해안까지 다녀간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강녀석姜女石 또는 강녀분姜女墳이라고 알려진, 해면에 솟은 커다란 3개의 암초 앞 해안에 있는 수중현 갈석 해안의 석비지石碑地의 행궁지는 요령성 고고문물연구소(강녀석공작참姜女石工作站)가 주관하여 1982년 발굴하였다. 진황도시 북대하는 1987년에서 1991년까지 하북성문물연구소가 주관하여 발굴하였다.

10)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269쪽.

Ⅵ. 평양 출토 와당으로 본 낙랑군과 낙랑국

1. 평양 출토 낙랑군 관련 와당

대동강 유역에서는 수 천기의 중국식 무덤이 발견되고 낙랑군의 것으로 보이는 칠기, 봉니, 금제 허리띠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2005년 낙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부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인 목간木簡까지 발견되었다. 평양 토성리에서는 ‘낙랑예관樂浪禮官’(사진6), ‘낙랑부귀樂浪富貴’(사진7), ‘대진원강大晉元康’(사진8), ‘천추만세千秋萬歲’(사진9), ‘만세萬歲’등의 중국계의 문자와당과 구름문와당도 다수 출토되었다.



사진6. '낙랑예관' 명수막새, 낙랑, 평양토성리, 지름15.5cm(유금와당박물관)
사진7. '낙랑부귀' 명수막새, 낙랑, 평양토성리, 현재지름15.5cm(국립중앙박물관)
사진8. '대진원강' 명수막새, 낙랑, 평양토성리, 지름14.0cm(유금와당박물관)
사진9. '천추만세' 명수막새, 낙랑, 평양토성리, 현재지름14.0cm(유금와당박물관)

정인보가 처음 주장한 이래 비주류 사학자들과 북한의 학자들은, 대동강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이나 출토된 중국계 봉니, 칠기 등 유물 들은 한군현 설치 시기 이전부터 이곳에 이주해오거나 고구려에 의해 강제 이주된 중국인들의 무덤이거나 그들의 유물이며, 또 일부 유물들은 당시에 중국에서 유입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¹¹⁾

그러나 이미 설명한 것처럼, 와당은 장소적 고정성이 있는 데다가 왕권의 상징이어서, 와당의 출토 사실은 왕을 대신하여 이 지역을 다스리거나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치소治所의 존재를 의미하게 된다. 중국인들이 이주해서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와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봉니나 목간, 칠기처럼 다른 곳에서 제작, 사용하던 것을 가

11)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493-500쪽; 이덕일, 앞의 책, 2009, 130-158쪽.

져왔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 와당이다. 특히 ‘낙랑예관’, ‘낙랑부귀’와당의 출토는 이곳에 낙랑과 관련이 있는 관서가 존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

유금와당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 출토의 문자와당과 구름문와당은 모두 33점이고, 그 밖에도 수키와 1점과 암키와 3점도 소장하고 있다. 일본인 와당수집가 이토쇼베 선생이 1910년경부터 1930년까지 수집한 다음 1931년 현재의 국립경도박물관國立京都博物館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전시회를 개최하였던 와당컬렉션의 일부이다. 이 와당컬렉션은 1945년 이미이즈미 선생, 1964년 이우치이사오 선생에게 차례로 인수되었다. 그 후 이우치 선생이 1987년 중요 컬렉션의 절반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받은 아들로부터 필자가 2005년 구입하여 한국에 환수해온 것이다.¹²⁾ 따라서 낙랑군의 와당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2점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의 국립동경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와당의 장소적 고정성 때문에 봉이나 목간, 칠기처럼 이동과 교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자, 비주류 사학자들은 이 와당들이 위조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파편까지 다량으로 남아 있는 토성리 출토 와당들의 출토시의 상황과 위와 같은 수집 경위, 수집 상황 등으로 보아 위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처음 우발적으로 출토되었을 때만 해도 일본 학자들은 낙랑군 와당이 아니라 고구려 와당으로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1700년 내지 2100년을 지하에 묻혀 있던 와당과 기와에 남아 있는 연륜의 흔적을 위조해서 여러 전문가의 안목을 모두 속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이 와당들을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 놓고 발굴하는 것처럼 속이는 역사 조작행위를 하였을까? 그 당시 중국 요서 지역에서 출토된 낙랑군 와당을 몇 점도 아니고 이렇게 다량으로 대동강 주변으로 옮겨 놓고 발굴, 수집하는 것처럼 출토지 조작을 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출토지 조작을 했다면, 이처럼 많은 와당이 출토한 그 지역에서 그 후에도 지금까지 같은 와당이 계속 출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전역의 와당 수집가와 연구자들과 10여년 교류하면서 ‘낙랑예관’, ‘낙랑부귀’, ‘대진원강’ 등의 와당과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유사한 와당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다.

또, 낙랑군 와당을 위조하거나 중국 다른 지역 출토의 낙랑군 와당을 악의적으로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올 수 있을 만큼, 당시에 이미 낙랑군 와당에 관한 연구가 깊고 이런 종류의 와당을 다량으로 수집한 일본인 학자들이 있었을까도 의문이다.

12) 유창중, 「이우치 컬렉션의 귀환여정」,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9-26쪽.

2. 낙랑국 와당설과 문제점

비주류 사학자 중의 일부는 평양에서 출토된 위와 같은 문자와당, 구름문와당들은 한군현인 낙랑군의 와당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실재하던 낙랑국樂浪國의 와당이라고 주장한다. ‘대진원강’와당은 원강이 서진 혜제의 연호로 서기 291년에서 299년까지여서 한사군의 유적으로 보기에는 조성 연대가 너무 늦고, ‘낙랑예관’과 ‘낙랑부귀’등은 이곳에 최리가 다스렸던 낙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취지다.¹³⁾

그러나 위 견해는 몇 가지 문제점과 명백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이 견해는 멀리 떨어진 서한 최고 수준의 문자와당이 어떻게 뜬금없이 최리의 낙랑국에서 제작, 사용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대동강 유역의 낙랑국은 난하 유역의 낙랑군 거주민들이 이주해와서 건국했다¹⁴⁾고 하더라도, 그들은 고조선인들이었을 텐데 왜 난하 유역에서도 사용하지 않던 서한의 와당을 엉뚱하게 평양에 이주해온 뒤 제작하여 사용하였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와당은 왕권의 상징이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서한의 와당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낙랑예관”이나 ‘낙랑부귀’와당이 만일 낙랑국의 와당이라면, 결국 낙랑국이 서한의 지배를 받는 나라이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삼국사기』는 낙랑국이 서기 32년 혹은 37년에 고구려에 의하여 패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낙랑국이 패망한 후에 어떻게 서기 291년에서 299년에 제작된 ‘대진원강’와당을 이곳에서 제작할 수 있는지 이 견해는 설명할 수가 없다. 도리어 ‘대진원강’와당은 낙랑군이 서진 혜제 원강 시기까지 존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것이다.

셋째로, ‘낙랑예관’, ‘낙랑부귀’와당 그리고 대부분의 구름문와당은 소위 ‘절당법切當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한의 초기나 중기의 와당이 분명하고, ‘천추만세’와당은 표면 가장자리에 톱니 문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한 후기나 위진 시대의 와당임이 분명하다.¹⁵⁾ 그렇다면 이 와당들은 동한 초기인 서기 1세기경에 존속했다는 낙랑국이 존재하기 이전이나 멸망한 이후의 와당이어서 낙랑국의 와당일 수가 없다.

절당법이란, 와당과 수키와를 접합한 부위의 절반을 실이나 대나무 칼로 절단한 흔적이 남는 제작 기법(사진6-1)인데, 진에서 서한 중기까지 사용되고 사라진 제작기법이다.¹⁶⁾ 서안에

13)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494쪽.

14) 윤내현, 앞의 책(상), 2015, 497쪽.

15) 유창중, 『동아시아 와당문화』, 미술문화, 2009, 49,60,70쪽.

16) 유창중, 앞의 책, 2009, 41쪽.

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서는 절당법이 서안보다 다소 오래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야 평양 토성리 와당은 대부분이 절당법으로 제작된 것이 이해된다. 문자와당은 서한 초기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서한, 동한, 위진북조 시기에 계속 성행한 와당이다. 결국 절당법으로 제작된 문자와당은 서한 초기나 중기의 것이다.

절당법이 진나라에 이어서 서한 중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20세기 말 대규모 발굴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그 전에는 절당법 제작 와당은 모두 진나라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만일 100년 전에 평양 출토의 와당이 위조되었다면, 그 당시의 연구 수준과 지식으로 보아서 절당법 와당을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평양 출토의 낙랑 관련 와당들은 모두가 낙랑국의 존속기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기에 제작된 와당들이며 낙랑국의 와당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진6-1. 절당법(사진6의 '낙랑예관'명수막새 뒷면)

3. 전돌 등 다른 평양 출토 유물의 제작 시기

평양 주변 무덤 출토의 문양과 문자 전돌 190여점을 유금와당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중국 조위曹魏의 연호인 경원景元 원년 (260년), 서진의 연호인 함녕咸寧 원년(275년)과 태강太康 7년(286년) 등의 문자전¹⁷⁾들은 낙랑군 존속 기간에 제작된 것이 틀림 없다. 이 전돌들도 이우치 부자로부터 기증받거나 구입한 것이다.

낙랑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유물들도 출토 경위와 유물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진위와 제작 시기를 밝혀야 할 것이다.

17) 김성구, 「이우치 컬렉션 와전의 개요와 특징」,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81-83쪽.

4. 와당으로 본 낙랑군

평양 토성리 출토 와당의 제작 시기를 전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절당법으로 제작된 ‘낙랑예관’과 ‘낙랑부귀’ 그리고 대부분의 구름문와당은 한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한 서한 중기에 제작된 것이고, 절당법이 사용되지 않은 서한 후기 이후의 와당을 거쳐서, ‘천추만세’와당처럼 톱니 문양을 가진 동한 후기나 위진 시대의 와당, 마지막으로 ‘대진원강’와당처럼 서진 혜제 원강 시기의 와당이 차례로 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평양 주변의 무덤에서 출토된 전돌 중에서 조위에서 서진 시기에 해당하는 260년에서 286년에 걸쳐서 제작된 것들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평양 토성리 출토의 와당과 전돌들은 사서가 기재하는 낙랑군의 존속기간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한 중기부터 서진 혜제 시기까지 상당 기간동안 평양에 낙랑군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VII. 낙랑군의 이동과 교군

1. 왕검성의 이동, 낙랑군과의 동일성

중국과 한국의 사서들은 모두 왕검성과 낙랑군의 위치는 동일한 곳으로 기록하고, 학자들도 주류, 비주류를 불문하고 거의 모두 그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왕검성의 위치에 관하여는 평양설과 요서설, 요동설 그리고 이동설이 대립해왔으며, 왕검성 평양설과 요서설, 요동설은 이미 검토한 것처럼 수용할 수 없는 치명적 맹점들을 가지고 있다. 고조선의 수도는 원래 요서나 요동에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최소한 1차례 이상 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첫째로, 요서 지역인 능원과 요동 지역인 요양, 심양에서 연 와당이 출토되어 이곳들은 모두 이미 연의 영토이면서 연의 관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도 4) 연이 요서와 요동 지역의 일부를 점령한 뒤에는 요서 지역에 고조선의 수도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요서의 조양 지역에서 기원전 9세기부터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을 생산하며 십

18) 유창중, 『와당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쟁점들』, 경인문화사, 2016, 97-119쪽.

이대영자문화가 크게 번영하다가 기원전 4세기에 이 문화가 돌연 중단되고, 요양과 심양에서는 기원전 3세기 전반의 연 지배층의 분묘가 발굴된다. 이러한 현상은 3세기 전후 연의 고조선 침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지도 4)

게다가 요양과 심양에서 위와 같이 연 와당이 출토되고, ‘양평’명 포전과 ‘창평’명 도옹편까지 요양에서 출토¹⁹⁾ 되는 것으로 보아서, 요양은 연의 요동군 치소였던 것이 거의 틀림없다.(지도 4) 그렇다면 고조선과 연의 경계는 요양과 심양보다도 더 동쪽과 더 남쪽일 수 밖에 없고, 고조선의 수도가 요서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셋째로, 진황도시 북대하와 수중현 갈석 해안의 진한행궁에서 출토된 와당 등 유물과 유적으로 보면, 진과 한의 고조선과의 동쪽 경계는 수중현 갈석 해안보다 동북쪽에 위치했을 것이다.(지도 4) 진시황과 한무제가 이곳을 순행할 때까지 왕검성이 계속 요서 지역인 진황도시나 그 서쪽 지역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도 4) 고조선의 서부 국경지대 이동²⁰⁾

결론적으로, 고조선이 건국되고 약 2천년간은 왕검성이 요서나 요동에 있었으나, 연의 진개 침공시인 기원전 300년 전후에 왕검성이 평양으로 이동해서 한무제 침공시까지 약 200년간 이곳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19) 이후석, 「고고학을 통해 본 만반한-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반한은 어디인가?』, 동북아역사재단, 2016, 72-73, 吳鑾軍, 「青銅餘緒 姬燕文脈」, 『燕下都瓦當』, 古宮出版社(北京), 2014, 27쪽에서 능원시 안장자성 출토의 도철문과 산운문 반원와당이 각 1점씩, 다른 문양 전국 와당 8점과 함께 소개되었다. 那愛文 主編, 『遼陽博物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2009, 19쪽에서 요양 출토의 쌍용문 반원와당이 쌍미문 반원와당의 이름으로 1점 게재되었다.

20) 유창중, 앞의 책, 2016, 116쪽 지도 및 114-119쪽 참조.

그렇다면, 왕검성과 낙랑군의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낙랑군이 설치된 왕검성은 고조선의 첫 왕검성인지 혹은 고조선이 멸망할 당시의 마지막 왕검성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왕검성의 위치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낙랑군의 위치에 관한 사서의 기록들을 해석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최근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107년이고, 낙랑군은 그 전해인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낙랑군은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인 왕검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¹⁾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마지막 왕검성과 낙랑군의 최초 설치 장소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의견이다.

2. 낙랑군 이동설의 논거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사서의 기록들과 낙랑군 유물의 평양 출토 현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중국 초기 사서가 기록한 왕검성은 첫 왕검성이고, 당서 이후의 사서가 기록하는 왕검성은 마지막 왕검성이라고 이해하면 모순과 대립이 해결된다. 왜 낙랑군이 이동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논거를 살펴보자.

첫번째 논거는, 왕검성의 천도 사실이다. 낙랑군과 왕검성이 동일한 위치라는 것을 전제로 낙랑군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왕검성이 최소한 1번 이상 천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왕검성은 천도한 사실이 없이 한 곳에 계속 존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낙랑군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서 사서 해석상의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주류 사학계의 과거 통설은 왕검성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양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비주류 사학계의 주장은 왕검성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서 지역이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주류 학계의 다수설이 된 이동설에 의하면 당연히 낙랑군이 설치되었던 왕검성이 첫 왕검성인지 아니면 마지막 왕검성인지를 살펴보아야 했다. 중국 사서의 기재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 왕검성’을 점령한 뒤에 ‘그 곳’에 낙랑군을 설치하였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논거는, 중국 초기의 사서가 낙랑군이 갈석(갈석산) 동쪽이나 요동에 설치된 것으로 기재하다가 후에 편찬된 사서에서는 평양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서 기록의 내용이 변화한 것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낙랑군은 요서, 요동에 있다가 평양

21) 조법중, 「고조선 왕검성의 위치, 논의와 쟁점」, 『한국상고사의 쟁점: 왕검성과 한군현』, 동북아역사재단, 2016, 43-44, 51쪽.

으로 이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무제는 고조선의 첫 왕검성과 주변 지역에 ‘동으로 갈석을 넘어…, 낙랑을 세웠다’가, 이 낙랑군이 그 후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옮겨 갔다고 이해하면, 사서 기록의 변화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 논거는, 요서 지역에서 발견된 한군현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1997년 요서 지역인 요령성 호로도시葫芦島市(원래 금서시錦西市, 지도4 참조)태집둔 소황지촌邵集屯小荒地村에서 ‘임둔태수장臨屯太守章’ 봉니와 함께 ‘천추만세’와 운문의 서한 시기 와당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서 그 지역이 임둔군이 설치된 지역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²²⁾ 같은 장소에서 비파형동검도 출토되어 원래 고조선의 영역이었음도 증명된다. 이 봉니는 고고학적 가치로 볼 때, 평양 토성리에서 발굴에 의해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 낙랑군 관련 봉니나 와당과 다를 이 유가 없다. 요서 지역인 이곳에 임둔군이 설치되었다면, 낙랑군과 진번군도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으로 갈석을 넘어 현도, 낙랑을 세웠다’는 『한서』의 기록으로 보아 현도군도 낙랑군 인근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출토되는 낙랑군 와당으로 보아서 평양에 상당 기간 낙랑군이 설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위 봉니의 출토는 평양 이전에 요서, 요동 지역에 한군현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임둔군은 기원전 108년경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82년 현도군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임둔태수장’봉니는 그 26년 사이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네번째 논거는, 한무제가 고조선을 함락했을 때, 고조선의 저항이 강력하고 끈질겨서 마지막 왕검성 평양에 바로 낙랑군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략하였으나 바로 정복하지 못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정인보의 의견처럼, 사실은 한이 고조선을 바로, 그리고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과 저항이 상당기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이런 상황에서 원래의 사전계획대로 고조선의 고토 한 복판이며 한의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 바로 낙랑군을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107년이고, 낙랑군은 그 전 해인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낙랑군은 마지막 수도인 대동강 평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요서, 요동에 있으면서 한나라의 영토로서 이미 안정되어 있던 첫 왕검성의 고토와 그 인근에 낙랑군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번째 논거는, 중국 초기 사서의 한군현에 관한 기록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무제

22) 복기대, 「임둔태수장 봉니를 통해 본 한서군의 위치」, 『백산학보』61, 2002, 47-62쪽.

23) 조법중,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61, 한국고대사학회, 2010, 60쪽 참조.

가 고조선을 공격하고 한군현을 설치하던 시기(기원전 109년-기원전 107년)에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기원전 109년-기원전 91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군현의 위치는커녕 이름조차 『사기』에 기재해 놓지 못하였다. 또 『한서』 「조선전」이나 『무제본기』에서는 4군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나, 「지리지」에는 2군의 이름만 기록하고, 어떤 곳에는 3군으로 기록하고 있다. 26년 만인 기원전 82년 진번과 임둔군을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하는 등 낙랑군을 제외한 한군현이 오래지 않아 소멸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초기 한군현의 불안정성과 통폐합, 이동 등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

고조선의 첫 왕검성의 위치는 요서와 요동의 어느 곳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고 있다. 첫 왕검성의 위치가 확정되면 낙랑군의 첫 설치 장소는 첫 왕검성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 추정될 것이다.

3. 낙랑군의 첫 왕검성 설치와 이동

한무제는 왜 마지막 왕검성이 아닌 첫 왕검성에 낙랑군을 설치하였는가? 그리고 언제 낙랑군이 첫 왕검성에서 마지막 왕검성으로 이동하였는가?

한무제는 전쟁이 끝난 뒤 출정하였던 좌장군 순채와 제남태수 공손수는 사형시키고, 누선장군 양복도 사형 결정을 하였다가 겨우 목숨만 살려주는 등 엄하게 징벌하였다. 동방의 대국 고조선을 멸망시킨 장수들에 대한 대접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기괴한 논공행상이다. 전쟁이 예상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 없다. 장수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징벌을 하는 한편 일단 고조선의 첫 수도 왕검성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나머지 군현들도 명목상 설치하였으나 그 위치와 명칭도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검성을 함락한 후에도 영토가 광활한 고조선의 여러 곳에서 저항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右渠의 아들 장항長降이 한에 항복하였다가 수년 후 모반에 관여한 일로 사망하였음은 이런 저항이 적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왕검성이 함락된 후 고조선의 넓은 영토에 분산하여 위치하던 70여개나 되는 제후국들이 모두 순순히 한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기』 「조선열전」에서도 ‘조선을 멸滅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조선을 평정하고 4군을 설치했다(定朝鮮爲四郡)’라고 기록하고 있다. 왕검성이 함락된 후 제후국들이 연이어 독립국가로 건국한 것을 보아도 이런 상황이 짐작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조선의 영토에 대한 점령이 사실상 정리되고 나서야 임시로 혹은 명목상 설치해 놓았던 한군현들을 정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빨라도 사마천이 사기의 편찬을 종료하였을 때(기원전 91년)까지는 낙랑군이 첫 왕 검성의 소재지에 명목상 계속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마천이 사기의 편찬을 계속 중에 낙랑군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확정되거나 변경되었다면 그는 그런 사실을 사기의 내용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한무제가 사망한 기원전 87년 이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무제 사후 한 소제漢昭帝가 한군현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명목상 남아 있던 임둔과 진번군을 낙랑군에 통합(기원전 82년, 기원전 75년)하면서 평양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평양 토성리 출토 와당 중에 서한 중기까지 성행하던 절당법을 사용한 와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한 후기나 그 이후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낙랑군 평양 이동의 배경

대동강 유역 평양은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낙랑군의 치소를 두는 것이 고조선의 중심 세력을 장악하고 고조선의 이전 강역을 통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소였을 것이다. 평양은 그 이전부터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왕래가 빈번하고, 중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적지 않게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한으로서의 군현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또 평양에 낙랑군을 설치한 것은, 한이 낙랑군을 남진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한반도의 남쪽 지역도 공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낙랑군은 남쪽에 있던 신라와 백제를 여러 차례 공략한 기록이 보인다.

5. 낙랑군 패망 후의 교군

대동강 평양으로 이동되었던 낙랑군은 313년 고구려에 의해 패망 후에 요서 지역 등에 교군(교치)되어 존속되었다. 이때 고조선의 첫 수도로서 낙랑군이 처음 설치되었던 첫 왕검성이나 그 인근의 위치로 다시 교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패망한 낙랑군의 교치 장소를 물색할 때, 낙랑군이 처음 설치되었던 원래의 장소나 그 인근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 『진기晉紀』에는, 낙랑, 대방 지역의 군벌 장통張統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선비족에게 항복하고, 모용외는 낙랑군의 피난민을 받아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장통을 태수로 삼았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다. 모용씨 이후 남북조 시기까지 낙랑군이 존치된 것으로 중국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요서나 요동에 있던 첫 왕검성이 기원전 300년 전후에 연의 침공을 받아 평양으로 천도 되고,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략한 뒤 낙랑군은 첫 왕검성과 그 인근에 설치되었다가 오래지 않아서 평양으로 이동되었으며, 낙랑군 패망 후 다시 첫 왕검성 인근의 요서, 요동으로 낙랑군이 교군 되는 바람에 중국과 한국의 사서들이 모순되는 듯한 기록을 남겨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Ⅷ. 한군현과 고조선의 정통성 계승

1. 한군현과 고조선

『삼국유사』는 조선, 즉 단군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른다. 이 고조선이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조선이 건국 이후 멸망할 때까지, 또 멸망 이후에도 국가적 정통성이 계승되고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고조선이 신화적 존재에 불과하고 역사적 실재가 아니었거나, 실재한 국가였으나 그 정통성이 계승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점령지였던 한군현(한사군) 시대 또는 삼한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존재하던 시대로부터 시작되며, 우리 민족의 뿌리조차 분명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단군조선이 실재하지 않았거나, 실재하였으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의하여 정통성이 계승되지 않았다면, 한군현은 우리 역사에서 부수적 현상에 불과하다. 한군현이 우리 역사의 부수적 현상에 불과하다면, 한군현의 위치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작은 것이다.

단군조선이 실재하였고 또 그 정통성이 계승되다가 한무제에 의하여 패망한 것이라면, 한군현은 고조선의 강역이었던 일부 지역에 설치된, 한의 식민지로서의 행정구역이다. 1910년 일제 강점 후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일제 식민치하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군현의 치소가 설치되어 처음에는 주로 한의 관리가 관장하였겠지만, 당시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서, 지배 계층에는 점차 토착의 고조선인들이 참여하여 협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은 대부분 토착의 고조선인들이었다. 낙랑군의 실제적인 지배와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 식민치하의 한국의 역사가 치욕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분인 것처럼,

한군현의 역사도 역시 치욕스럽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로 취급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으로서는 한군현을 자기들의 역사로 취급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 한군현 설치 후 고조선의 정통성 계승

고조선이 멸망하여 한군현이 설치되었으나 낙랑군을 제외하고는 단 기간 내에 소멸하였고, 낙랑군이 실질적으로 관장한 지역은 고조선의 광활한 강역에 비하면 그리 넓지 않았다. 고조선이 멸망 후에 우리 민족은 바로 고조선의 북쪽 고토에서는 부여, 고구려 등이, 남쪽에서는 신라, 백제 등이 고조선의 역사를 계승하였다. 우리의 역사를 큰 눈으로 훑어보면, 중국 역사에 비해서 이민족에 의하여 완전히 역사가 단절된 기간은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

삼한과 부여,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는 모두 고조선인들이 세운 나라이며, 고조선의 정통성을 지키고 국세를 회복하려는 염원을 지니고 살아왔다. 고조선 이래 삼국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적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진행, 발전해왔다.²⁴⁾

지금의 우리 자신도 모두가 고조선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가 고조선(단군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 못하지 않게 민족적 귀속감과 국가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Ⅸ. 몇가지 제안

1. 제안 배경

1) 주류, 비주류 사학자들 간의 대립 격화

한민족의 바른 역사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류와 비주류 사학자 사이에 학문적 논쟁을 넘어 감정적 대립을 보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내 학자들의 단합과 협력 없이 다른 국가와의 역사 전쟁에서 이겨 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

24) 유창중, 앞의 책, 2016, 136-138쪽.

와 역사 분쟁을 하고 있는 주변국의 학자들은 우리 학자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허송 세월하고 있음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22세기에 이르러, 21세기 초의 우리 사학자들은 내부 대립을 하다가 주변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대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상고사의 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 겸허하게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토론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이론의 정립을 위해 학문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2) 상고사와 역사 분쟁의 핵심 문제 소홀

한국의 상고사 특히 단군조선의 실체와 그 문화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밝히는 일이다.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문화적 자부심이 없다면 국민적 통합과 애국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왕검성과 한군현의 위치는 부수적 문제에 불과하고, 단군 조선의 실재 여부와 실체를 파악하고 단군조선의 정통성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실체와 문화적 특성, 정통성의 계승이 규명되어야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그 이전의 문화 즉 요하문명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사학을 극복하면서 역사 분쟁 대응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해방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학계가 한군현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인 고조선의 연구를 소홀히 한 연구 자세 자체가 식민사학의 잔재와 영향임을 각성해야 한다. 단군조선의 실재와 정통성의 계승이 화급히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제안 방안

1) 고조선연구소 설립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고조선연구소’의 설립 등 고조선의 연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배려가 시급하다. 고조선의 실체와 정통성 승계 여부는 요하문명의 귀속 주체 탐구와 주변국과의 역사 분쟁 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 과제다.

당장의 연구 조직, 인력의 확보뿐만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연구 지원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조선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에 주류는 물론 비주류 사학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하

고, 문헌사학만이 아니라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복식학, 신화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부수적 쟁점 정리를 위한 집중적 토론

주류와 비주류 학자들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한군현의 위치 등 부수적인 쟁점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고조선의 실체 파악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역사 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이 마련한 상고사 토론회와 중국 요서 지역의 답사를 통해서 주류와 비주류 사학자 간에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어 왔다. 이제는 좀 더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논의해온 쟁점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주류와 비주류 학자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관계자가 협의하여 바람직한 상고사 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또 집중적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엽적인 쟁점들에 관한 논쟁을 가급적 서둘러 종결하고, 모두가 고조선의 실체 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합적 역사 분쟁 대응

일부 학자들로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미 종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의 원류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민족과 문화의 뿌리를 찾는 연구와 노력을 종료하였다는 것은 동북공정이 시작된 중국의 근원적 고민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최근들어 일본에서 다시 임나일본부설이 재론되고, 독도 문제에 대해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변국과의 역사 분쟁에 대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역사 분쟁에 있어서 당면의 현안에 대해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의 사이에 고대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쟁점들이 있는지를 모두 발굴하고, 그 쟁점들이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요하문명의 주체²⁵⁾, 금사金史와 청사淸史 그리고 대마도對馬島와 도래인渡來人 등 그동안 거론 되었던 사안들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일부다.

예컨데, 고구려인 대조영 집단이 말갈족을 근간으로 건국한 발해가 한국 역사의 일부라면, 고려인 함보가 여진족(말갈족)을 근간으로 건국한 금군도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에서는 원이나 요나라에서 오동나무 잎 형태의 암막새를 처음 제작하여 사용하

25) 유창중, 앞의 책, 2016, 46-50, 68-73쪽 참조

였으나, 금나라는 당시 고려에서 유행하던 장방형의 암막새를 사용하였다. 고려에서 온 함보가 금나라를 건국하였음을 기재한 중국 금사金史의 기록을 입증하는 유물이다. 발해고渤海考를 저술한 유득공과 같은 사학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금이 한국 역사의 일부라면, 금을 승계하여 건국한 청淸은 우리 역사와 어떤 관계인가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²⁶⁾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서 고대이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로부터 바다를 넘어 일본에 건너갔다. 특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나라를 잃은 백제와 고구려인들이 적지 않게 일본에 건너갔다. 이들은 도래인渡來人이라고 불리면서 정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원주민들과 혈연적, 문화적 교류를 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은 원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원주민들을 교육, 지도하거나 지배계급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4세기 중반에 아직기와 왕인이 선진 문화를 전파하러 일본에 건너갔으며, 백제의 와박사들이 일본에 도래하여 일본 최초의 와당인 비조사의 연화문와당을 제작해 준 것이 588년에서 596년 사이이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의 일본 초기 와당은 모두 한국의 와당문화를 수용하여 모방하는 수준이었다. 기마민족 지배설이나 일본 천황 가계가 도래인의 후예라는 주장은 이러한 문화 전파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명과 문화 수준의 시기에 임나일본부의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 좀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²⁷⁾

어쩌면 거시적 안목의 쟁점과 연구 과제들 중에는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을 가진 재야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 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역사 분쟁 해결을 위한 사명감과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사관을 갖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미적지근한 자세로 자신의 세분화된 학문적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일부 학자의 자세는 불식되어야 한다.

26) 유창중, 앞의 책, 2016, 186-187쪽.

27) 유창중, 앞의 책, 2016, 196-197쪽.

〈참고문헌〉

- 김성구, 「이우치 컬렉션 와전의 개요와 특징」,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 박선미, 「고조선의 강역과 중심지」,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역사재단·고조선사연구회 편, 2009
- 복기대, 「임둔태수장 봉니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白山學報』第61號, 2002
- 복기대, 「한군현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 검토」, 『한국상고사의 쟁점: 왕검성과 한군현』, 동북아역사재단, 2016
- 서영수, 「고조선사의 쟁점과 역사현장」, 『고조선사 연구 100년: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2009
- 송호정,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8, 한국고대사학회, 2010
- 심백강,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역사』, 바른역사(서울), 2014
- 沈章興, 「金山嘴秦宮遺址的发现和發掘」,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北京燕山出版社, 2000
- 吳磐軍, 「青銅餘緒 姬燕文脈」, 『燕下都瓦當』, 古宮出版社(北京), 2014
- 王雪农, 「从秦皇島地区秦汉建筑遗址看秦始皇求仙活动」,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北京燕山出版社, 2000
- 유창중, 『동아시아 와당문화』, 미술문화, 2009
- 유창중, 「이우치 컬렉션의 귀환여정」,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 유창중, 『와당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쟁점들』, 경인문화사, 2016
- 劉鐵峰, 「東臨碣石有遺篇-秦皇島地區出土的秦漢瓦當」, 『收藏』總第183期, 2008
- 윤내현, 『고조선연구 상/하』, 만권당, 2015
- 이덕일,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역사의 아침, 2009
- 李書和(主編),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北京燕山出版社, 2000
- 이청규,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제6호, 2005
- 이후석, 「고고학을 통해 본 만변한-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 변화」,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동북아역사재단, 2016
- 정인성, 「일제 강점기 토성리 토성(낙랑 토성)의 발굴과 출토 유물 재검토」, 『한국상고사의 쟁점: 왕검성과 한군현』, 동북아역사재단, 2016
- 조법중,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61, 한국고대사학회, 2010
- 조법중, 「고조선 왕검성의 위치, 논의와 쟁점」, 『한국상고사의 쟁점: 왕검성과 한군현』, 동북아역사재단, 2016
- 中国社会科学院主办(譚其驤 主編), 『簡明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96
- 那愛文 主編, 『遼陽博物館藏精品圖集』, 遼寧大學出版社, 2009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

공석구 (한밭대)

- I. 머리말
- II. 『中國歷史地圖集』의 漢長城과 연구결과의 확산
 - 1. 『中國歷史地圖集』에 나타난 漢長城
 - 2. 연구 결과의 확산과 재생산
- III. 漢長城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 1. 『中國歷史地圖集』 출간 이전
 - 2. 『中國歷史地圖集』 출간 이후
- IV. 漢長城 東端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漢長城 東端과 樂浪郡
 - 2. 문헌사료의 해석 문제
 - 3. 장성유적의 實在 문제
- V.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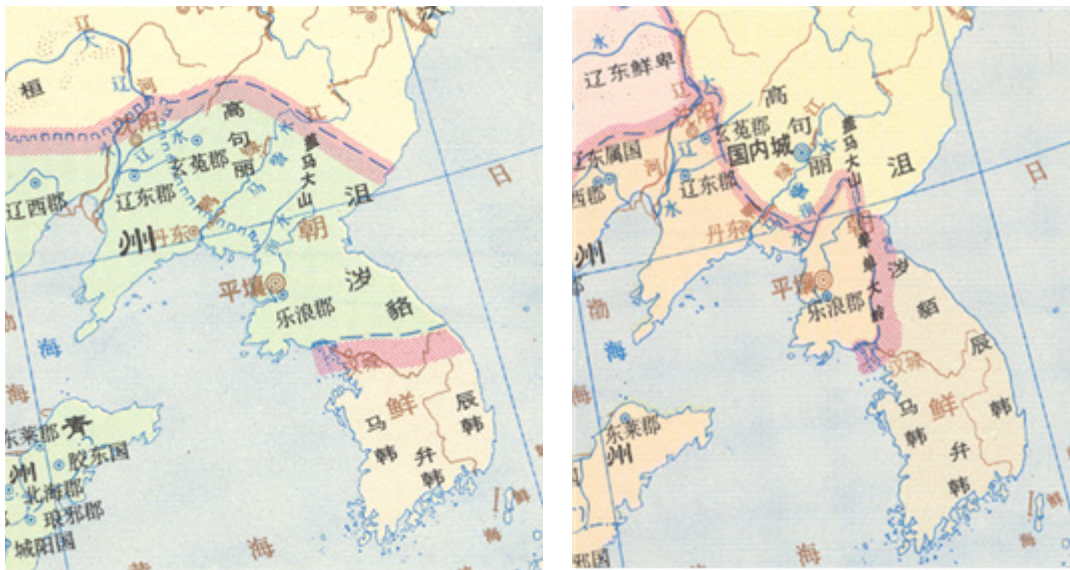
본 연구는 『中國歷史地圖集』¹⁾에 나타난 漢나라 시기의 長城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中國歷史地圖集』에 표현된 漢나라 시기의 長城(이하는 漢長城이라고 기술함)에는 한반도와 관련

1) 1982년에 공식 출간된 『中國歷史地圖集』(譚其驤主編, 地圖出版社)은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이라는 전제하에서 종전의 여타 역사지도집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중국 역대왕조의 강역을 표현하였다. 역사상의 중국, 중원왕조, 지방정권, 변경정권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왕조단위로 표현하던 기존지도의 모호성을 탈피하여 표준연대를 설정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중국역사는 여러 민족이 함께 만든 것이라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바탕으로 한 강역관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현재 중국의 역사지도, 역사교과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된 부분이 있다. 漢長城이 압록강을 넘어와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학계의 역사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외국에까지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파급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국학계의 역사 및 경계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필자의 선행연구인 燕長城, 秦長城 문제²⁾에 이어서 진행된 것이다.

Ⅱ. 『中國歷史地圖集』의 漢長城과 연구 결과의 확산

1. 『中國歷史地圖集』에 나타난 漢長城



〈그림 1〉 『中國歷史地圖集』의 漢長城(左: 西漢, 右: 東漢)³⁾

2)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考察』 『백산학보』 99.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平壤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선사와 고대』 43.
 공석구, 2016, 『秦장성 東端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호.
 3) 『中國歷史地圖集』 第2册, 1982, 地圖出版社, 13~14쪽(西漢), 40~41쪽(東漢).

『中國歷史地圖集』⁴⁾(이하는 『地圖集』이라고 기술함) 第2冊에는 西漢시기와 東漢시기의 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 한반도관련 지도는 4본이 있다. 서한시기에 해당하는 것 2本, 동한시기에 해당하는 것 2本이 있다. <그림 1>은 西漢과 東漢시기의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漢왕조 시기 한반도 지역에 해당하는 疆域의 변화상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장성 표기의 有無에 있다. 西漢시기에는 서한의 강역내부에 장성을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東漢시기에는 장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강역경계선 내부에 장성경계선이 표현되었다. 서한시기의 경우, 장성경계선과 疆域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동한시기에 이르러 장성표현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정권의 영역경계선(政權部族界)으로 변화되었다. 특이한 것은 동한정권부족계의 외곽에 고구려를 표기한 것이다. 이는 『地圖集』 찬자가 고구려를 東漢왕조의 강역경계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적인 정권으로 이해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2년 시작된 동북공정과 연관시켜 볼 때, 당시 중국학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서한의 강역경계선 내부에 표기된 장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장성을 표현한 ‘西漢時期全圖’(13~14)와 部分圖에 해당하는 ‘幽州刺史府’(27~28)를 살펴보자.⁵⁾ 이와 관련하여 『地圖集』은 앞부분에 제작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西漢時期圖組編例’를 보면 여기에 표현된 행정구역(郡, 國)의 경계는 成帝 元延 말년(B.C. 9년), 郡·國의 명칭 등은 平帝 元始 2년(서기 2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설명이 있다.⁶⁾

<그림 1>-左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그림은 西漢時期 全圖이다. 비례척은 21백만 : 1에 해당한다. 西漢시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분홍색 계열의 색깔로 그 疆域경계선(西漢政權部族界)을 표시하였다. 漢이 설치한 행정구역인 州, 郡, 도호부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었다. 한반도 내부를 보면 ‘낙랑군’, ‘현도군’, ‘예맥’ 등이 서한의 강역 경계 안에 표기되었다. 漢나라의 강역 외곽지역은 다른 색깔로 표현하였다. 그 지역에 존재하는 세력들을 각기 기록하고 있다. 한반도 내부에는 낙랑군의 남쪽에 ‘마한’, ‘진한’, ‘변한’, 한반도 북쪽에는 ‘숙신’, ‘부여’, ‘선비’ 등이 표시되었고, 서북쪽에는 ‘흉노’가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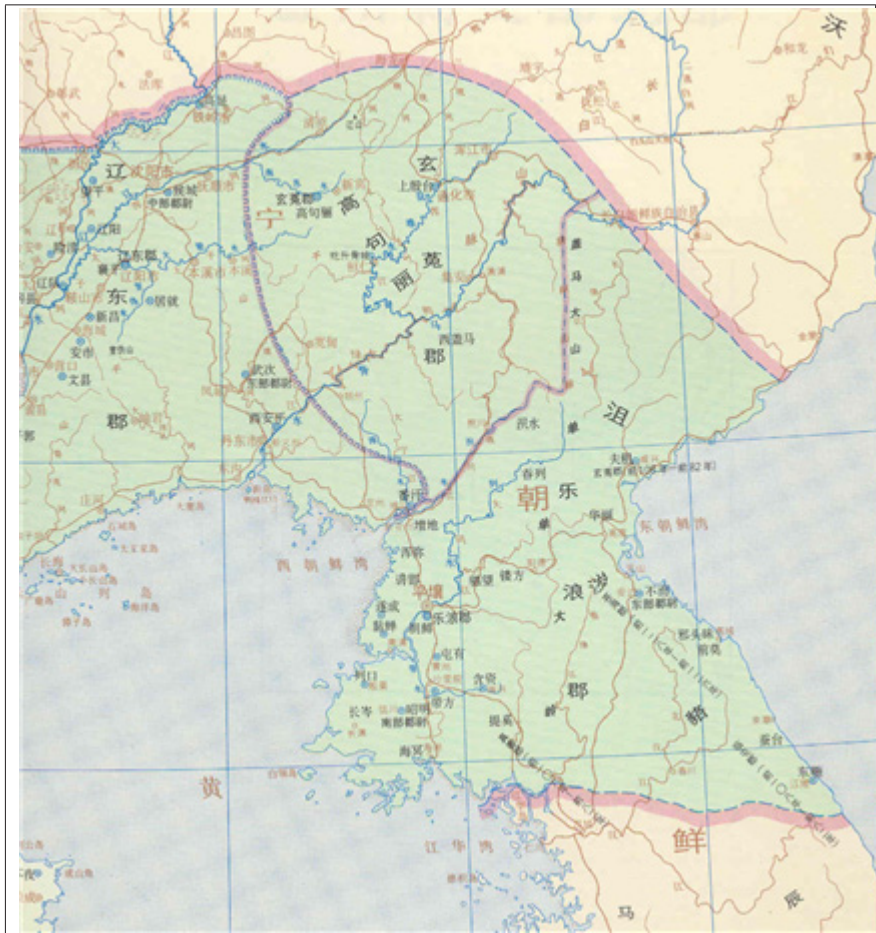
그런데 漢나라 강역의 북쪽과 동쪽 지역을 살펴보면 長城을 표현하였다. 『地圖集』에 제시된 장성 line은 푸른색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푸른색의 선에 대하여 『地圖集』 앞부분

4) 『中國歷史地圖集』 第2冊, 1982, 地圖出版社.

5) 본고에 인용한 지도는 1982년도 공식 간행된 『地圖集』이다. 한편 이 지도를 1975년에 간행된 내부본 『地圖集』과 비교해보면 지명 등의 표기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체 수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장성라인과 장성표기 방식은 동일하다. 따라서 장성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은 이미 1975년에 결정된 것이라 하겠다.

6) 이에 비해서 東漢시기 지도에 제시된 행정구역의 기준연대는 順帝 永和5년(서기 140년)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에 제시된 圖例를 살펴보면 ‘長城’ 또는 ‘The Great Wall’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漢 장성이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요녕성 무순시 부근의 어느 지점에서 남쪽으로 꺾여 내려오는 장성라인 외곽부에는 장성 바깥세계에 살고 있던 세력(‘고구려’, ‘현도군’, ‘숙신’, ‘부여’, ‘옥저’, ‘예맥’)들을 기록해 넣었다. 그렇다고 하여 장성 바깥의 지역이 중국역사상의 강역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⁷⁾ 특이한 것은 장성 외곽지역에 한사군에 해당하는 ‘현도군’, ‘낙랑군’이 표기된 것이다. <그림> 2를 보자.








〈그림 2〉 西漢 幽州刺史府(『地圖集』2冊, 27~28)

7) 『地圖集』 1의 總編例 13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도가 포괄하는 지역에는 모든 소수민족의 분포 지역과 이들이 수립한 政權이 소유한 영토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도가 포괄하는 지역의 기준은 1720년대에서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시기의 판도를 역사상의 중국 영역으로 정했다. 이 범위 안에 존재한 민족은 모두 중국역사상의 민족이고, 이 범위 안에서 건립한 정권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정권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중국의 민족이 아니고, 중국의 정권도 아니라 하였다. 따라서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흉노', '숙신', '부여' 등은 중국 소수민족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역사인식이 지도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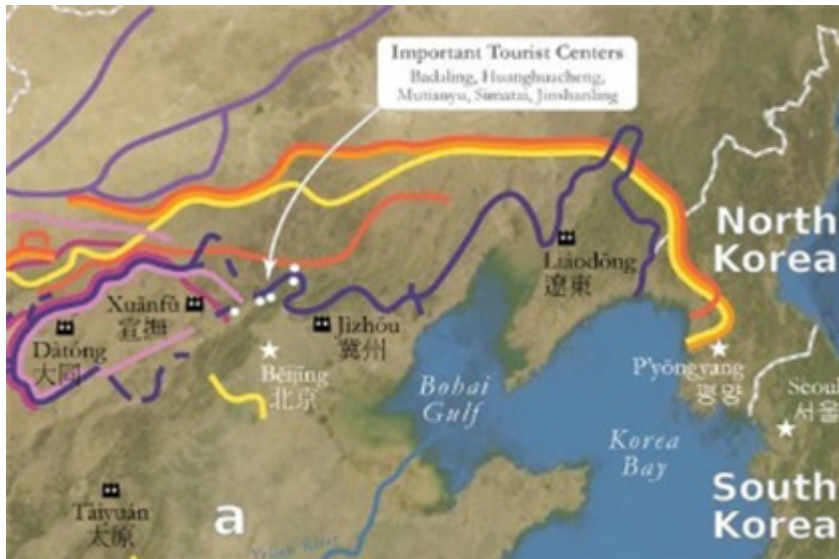
〈그림 2〉는 西漢의 강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부분도 중의 하나이다. 동북방에 해당하는 幽州刺史部이다. 비례척은 420만 : 1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그림 1〉-左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西漢의 동북방 강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서한의 영토 경계선(政權部族界)을 분홍색으로 표현하였다. 경계선 밖에는 ‘오환’·‘부여’·‘숙신’과 ‘마한’·‘진한’등을 표기하였다. 강역경계선 안에는 ‘요동군’·‘현도군’·‘낙랑군’의 명칭과 함께, ‘고구려’·‘예맥’등을 표기하였다. 여기서 고구려가 표기된 것은 현도군소속의 고구려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그리고 西漢 ‘政權部族界’내부에는 작은 글씨로 한사군의 명칭을 표기하였다. 현 강원도 지역에 ‘臨屯郡(前108년~前82년)’이 현 황해도 지역에 ‘眞番郡(前108년~前82년)’이 표기되었다. 그리고 현 함경남도 안변부근에는 ‘滄海郡(前128년~前126년)’, 현 함경북도 함흥부근에 ‘玄菟郡(前108년~前82년)’이 표기되었다. 옥저는 강역경계선의 외곽에 ‘沃’강역경계선 안쪽에 ‘沮’를 배치하여 애매한 상태로 표기하였다.

『地圖集』에서 낙랑군과 漢 장성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는 차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반도 외곽의 북부지역에는 ‘遼東郡’, ‘玄菟郡’, ‘高句麗’ 등이 표기되었다. 이들은 西漢왕조의 경계내부에 속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漢 장성 라인은 요동군과 현도군의 경계선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의 북부지역의 강역경계선 안쪽으로는 ‘遼西郡’·‘遼東郡’등의 명칭이 보이고 있다. 현재의 지명과 西漢대의 古地名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압록강을 ‘馬訾水’로, 청천강을 ‘沮水’대령강을 ‘沛水’로, 대동강을 ‘冽水’로 표기하였다. 한편 장성라인은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 하류의 북쪽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고 있다. 장성이 끝나는 지점에 ‘番汗’이라는 표기가 있다. 여기서 변한이라는 표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변한은 요동군의 속현에 해당하는 ‘番汗縣’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장성라인의 내부지역은 요동군에 해당한다. 이 그림을 통하여 서한시기 요동군의 경계가 청천강 하류지역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長城 線을 살펴보자. 〈그림 2〉는 〈그림 1〉-左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漢長城 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漢 장성을 ‘’부분과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서군과 요동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요서군 서쪽방향으로는 선이 연결된 실선형태로() , 요동군 동쪽방향으로는 선이 연결되지 않은 점선형태로()로 표시되었다. 이처럼 점선형태로 표시된 長城 線()은 청천강 하류지역까지 도달하였다.

2. 연구결과의 확산과 재생산

『中國歷史地圖集』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 제시된 학술적인 내용은 이후 중국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으로서 작용하였다. 중국에서는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이 연구결과가 공식자료로 채택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경향을 정리해보면 『地圖集』 출간 이후 그 내용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시키는 연구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地圖集』의 역사인식이 외국에까지 확산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을 보자.



<그림 3> 중국 역대장성⁸⁾

<그림 3>은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百度』에서 ‘長城：中國古代第一軍事工程’ 항목에 소개된 내용이다. 주황색으로 표기된 한나라 시기의 장성이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역사 상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1) 중국의 각종 교과서

<그림 4>는 중국의 각종 교과서에 표기된 漢나라 장성관련 지도를 몇 가지 제시한 것이다.

8) 『百度』百科 ‘長城—中國古代第一軍事工程’(http://www.verydesigner.cn/article/22335?ajax=1).



〈그림 4〉 漢나라의 疆域圖⁹⁾

이들 지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漢長城이 한반도를 넘어온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4〉는 『地圖集』(제2책, 지도출판사, 13~14쪽)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地圖集』에서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연결되지 않은 點線형태(□□□□)로서 표현하였는데 비하여, 〈그림 4〉의 경우처럼 애국주의적 역사관이 반영된 중국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를 왜곡하여 장성 Line을 實線형태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2)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



1. 중국 국가박물관(북경시)



2. 산서성 박물관(태원시)

9) 〈그림 4〉-左:中國地圖出版社·人民教育出版社編, 2006,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지도책3(必修) 地圖冊』, 6쪽, 〈그림4〉-右: 中央教育科學研究所·中國地圖出版社編, 200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上册, 68쪽.



3. 요양박물관(요양시)



4. 길림성박물관(장춘시)

〈그림 5〉 漢나라 장성 東端을 청천강까지 표기한 중국의 박물관 현황

〈그림 5〉는 중국의 주요 박물관 및 중국 동북지역박물관에 제시된 漢長城 관련 지도패널이다. 〈그림 5〉-1은 北京市에 소재한 中國國家博物館에 걸린 패널이다. 「漢時期全圖」라는 제목인데, 漢나라 疆域은 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漢왕조의 경계가 한반도 중북부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내부에 고구려, 예맥등이 표기되었다. 거기에 장성선이 표현되었는데 청천강유역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長城라인을 實線형태(——)로 표현하였다. 『地圖集』의 〈그림 2〉를 변형시켜 표현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5〉-2는 太原市에 소재한 山西省博物館에 걸린 패널이다. 「漢時期全圖」라는 제목인데, 漢나라 疆域이 한반도 중북부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漢왕조의 강역 안에 포함된 한반도 중북부지역에다가 ‘고구려’라고 표기하였다. 흰색으로 장성라인을 표현하였는데 그 장성이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되었다. 장성의 서쪽에는 ‘幽州’라고 표기하였다. 〈그림 5〉-3은 요양시에 소재한 遼陽博物館에 걸린 패널이다. 「西漢遼東郡襄平城位置圖」라는 제목인데, 漢나라 疆域은 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장성라인이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되었다. 역시 長城라인을 實線형태(——)로 표현하여 『地圖集』을 윤색하여 표기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림 5〉-4는 2016년 10월 신축 개관한 長春市 吉林省博物院에 걸린 패널이다. 「吉林省歷史地圖·西漢」이라는 제목이 있다. 이 지도는 『地圖集』의 〈그림 2〉와 유사하다. 역시 長城라인을 實線형태(——)로 표현하여 『地圖集』을 윤색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한 지도는 단동시에 소재한 虎山長城歷史博物館에 걸린 패널(「漢長城走向圖」)에서도 볼 수 있다. 『地圖集』의 〈그림 2〉와 동일한 것이다. 이 박물관에는 또 다른 장성관련 패널이 붙어 있다. 「漢長城防禦圖」라는 제목의 패널이 있다. 이 패널에는 한반도 지역의 漢장성이 實線형태(——)

로 표현되어 있다. 동일한 박물관에 걸린 패널에서도 장성을 표현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북경시 팔달령에 소재한 중국장성박물관에 걸린 패널(『漢代屯田示意圖』)과 요녕성 本溪市에 소재한 本溪博物館에 걸린 패널(『西漢遼東郡襄平城位置圖』)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집안박물관(2014년 개관), 길림시박물관 등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이와 유사하게 표현한 지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漢 장성이 청천강 하류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은 분명 『地圖集』을 비롯한 중국학계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Ⅲ. 漢長城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1. 『中國歷史地圖集』 출간 이전

『地圖集』에 漢 장성이 청천강유역까지 도달하도록 표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6>을 제시한다.



1. 고흥강지도집¹⁰⁾



2. 광말약지도집¹¹⁾

<그림 6> 『地圖集』 출간 이전의 역사지도

10) 編者 顧頡剛·章巽 校者 譚其驤, 1955, 『中國歷史地圖集-古代史部分-』, 地圖出版社(第8圖 西漢的人民起義和政區劃分圖).

11) 郭沫若主編, 1979,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西漢時期形勢(西紀 2年), 30쪽).

위 <그림 6>은 『地圖集』출간 이전에 발표된 선행 역사지도집이다. 顧頡剛 지도집과 郭沫若 지도집에서 관련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먼저 顧頡剛 지도집을 살펴보자. 고힐강 지도집에는 한반도까지 연결된 西漢시기 지도 2본이 제시되었다.¹²⁾ 위 그림은 제 8圖에 해당한다. 노란색으로 서한의 강역을 표기하고 그 내부에 장성이 표기되었다. 장성은 ‘ㄴㄴㄴㄴ’와 같이 실선 형태로 표현하였다. 현재의 지명인 ‘평양’에다가 ‘낙랑’이라 표기하고는 장성라인을 낙랑서쪽 지역까지 연결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第 9圖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顧頡剛 지도집의 편찬과정에 譚其驤이 깊숙하게 관여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地圖集』과 비교해 볼 때 장성의 동단지점에 대한 표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郭沫若 지도집을 살펴보자. 「西漢時期形勢」이다. 서기 2년을 기준연대로 하였다. 장성의 모습이 ‘ㄴㄴㄴㄴ’부분과 ‘××××’부분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다. ‘××××’로 표기된 부분을 보면 한반도 중북부지역까지 표기되었다. 자세히 보면 현재의 청천강을 ‘淇水’라는 고대 지명으로 표기하고는 ‘××××’를 청천강부근까지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兩者는 장성관련 표기가 한반도 중북부지역까지 연결시킨 것은 동일하지만, 그 동단 지점(고힐강→대동강 서쪽지점 : 곽말약→청천강)과 표현방식(고힐강→장성 : 곽말약→장새)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림 6>은 장성라인의 통과지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에서 『地圖集』의 장성라인과 비교해볼 때 郭沫若지도집이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담기양이 이미 1948년에 발표한 「秦郡新考」에서 제시한 秦 장성라인과 유사하다. 담기양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중국학계에서는 한반도까지 연결된 장성과 관련한 몇 가지 견해가 제출되었다. 1976년 왕희는 부신→개원→봉성→압록강→안주→대동강→평양까지 이르는 노선을 주장하였다.¹³⁾

1982년 이전복은 1979년에 발표된 이문신의 주장¹⁴⁾(부신→창무→법고→개원→신빈→관전→압록강)을 계승하여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들어온 장성이 용강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¹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地圖集』의 주장과 비교해볼 때,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반도지역은 물론이고 요녕성·길림성 지역을 지나는 장성노선이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12) 第八圖〈西漢的人民起義和政區劃分圖〉와 第九圖〈西漢帝國和四隣圖〉에 해당한다.

13) 王熙, 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歷代疆域形勢』, 學生書局, 173쪽.

14)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150쪽.

15) 李殿福, 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982-1, 62쪽. 그는 연·진장성의 동단을 낙랑군 수성현에 소재한 갈석으로 파악하였다.

2. 『中國歷史地圖集』 출간 이후

『地圖集』이 출간된 이후 청천강까지 표현된 漢 장성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漢장성 노선에 대하여 『地圖集』을 따르는 견해이다. 또 다른 하나는 『地圖集』의 노선과는 전혀 새로운 노선도를 제시하는 견해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자. 첫째로, 『地圖集』의 노선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연구 성과이다. 중국학계는 대부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부류는 문헌사료를 해석한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결론은 대체로 『地圖集』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周振鶴은 『地圖集』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漢장성을 청천강까지 연결시켰다.¹⁶⁾ 顧頡剛·史念海는 漢長城이 동북으로는 조선의 평양 남쪽까지 이르렀다¹⁷⁾고 하였다. 또한 王綿厚는 사료상에 나타나는 갈석산을 비정하여 漢장성이 평양 서남쪽의 용강군까지 연결된 것으로 해석¹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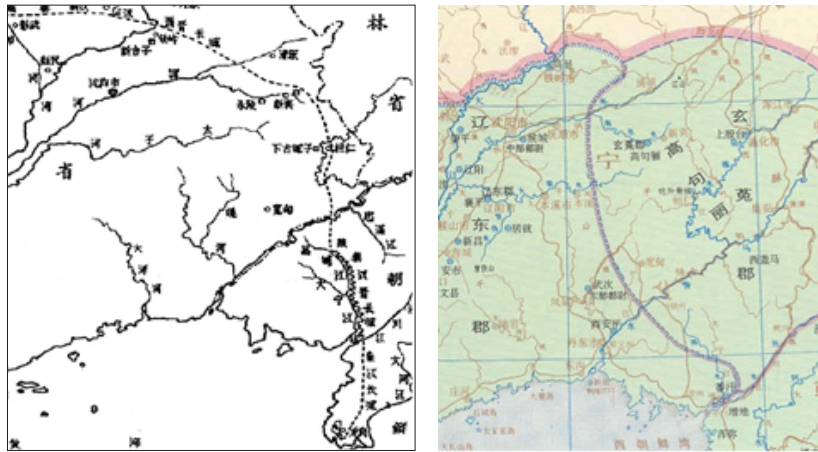
둘째로, 『地圖集』의 노선과는 전혀 새로운 노선도를 제시하는 견해이다. 이는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구체화 되었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요녕성 및 길림성지역에서 長城유적을 조사한 견해¹⁹⁾들이 꾸준히 발표되면서 이 지역에서 장성노선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림 7>을 보자.

16) 周振鶴, 1984, 『西漢政區地理』, 人民出版社, 208쪽.

17) 顧頡剛·史念海, 2000, 『中國疆域沿革史』, 商務印書館, 69쪽.

18) 王綿厚, 1994, 『漢漢東北史』, 遼寧人民出版社, 209쪽.

19) 馮永謙·何溥澄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孫杰,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1997-2.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63.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漢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研究』, 『博物館研究』, 98.



〈그림 7〉 馮永謙²⁰⁾과 『地圖集』의 장성노선도 비교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역대 장성을 연구해 온 풍영겸은 요녕성지역을 통과하는 漢長城 통과선을 제시하였다(〈그림 7〉-좌). 『地圖集』에서 제시된 노선도와 비교해볼 때 상이하다.²¹⁾ 그런데 풍영겸이 제시한 장성라인은 추정선에 불과하다. 주장할 만한 고고학적인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압록강을 넘어온 漢 장성부분은 『地圖集』과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주목할 것은 한반도로 들어온 장성이 대령강유역에 해당하는 지점에 한해서 실선으로 바뀌어 표현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1987년 청천강 북쪽지역의 대령강에서 장성유적(大寧江長城)²²⁾이 발견되었다는 북한학계의 조사보고는 장성문제를 고심하던 중국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풍영겸도 이 소식에 자극받아 대령강장성을 漢 장성의 실제 유적으로서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비정한 논리적 배경은 요동군소속의 변한현을 청천강부근의 박천지역(박릉성)에 비정한 『地圖集』의 해석을 계승한 데 있다.²³⁾

중국학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은 大寧江 長城을 중국 燕·秦·漢 장성의 遺址로서 해석하고 있다. 燕·秦 장성의 기초위에다가 漢나라 장성을 덧씌운 것으로 이해하여, 대령강 장성을 漢나라 장성의 실제 유적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地圖集』 이후 1997년 鄭君雷²⁴⁾, 1998년 李健才²⁵⁾와 張博泉·魏存成등의 동조를 얻었다. 대령강장성이 고고학적으로 漢

20) 馮永謙, 1996,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4쪽.

21) 馮永謙은 漢長城 라인을 대동강입구 북안의 갈석에서 부터 대령강, 창성강을 거쳐 압록강을 지나 관전→환안→신빈→청원→철령→법고로 이어지는 라인을 설정하였다(馮永謙·何博濤編著,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內表紙 도면 참조).

22) 평안북도 박천군 중남리에서 시작하여 원남리를 지나 영변군 고성리를 경유하여 태천군 옹흥리→학당리→덕화리→풍림리→양지리→동창군 학봉리→학승리→봉룡리→학성리→신안리로 이어져 그 길이가 무려 12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이와 같은 인식은 『東北歷史地理』(孫進己·馮永謙, 1988, 黑龍江人民出版社, 292~293쪽)로 계승되었다.

24) 鄭君雷, 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 1997-1, 70쪽.

25) 李健才, 1998, 『公元前3—公元前2世紀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98年 5期, 199쪽.

장성의 실제유적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景愛²⁶⁾에게로 연결되었다. 이는 최근의 장성관련 연구²⁷⁾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중국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地圖集』과는 전혀 다른 漢 장성 노선을 설정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발간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을 보면 요녕성 지역의 漢 장성은 新賓縣까지 연결된 것으로 표현하였다.²⁸⁾ 이후 중국학계는 국가적 차원의 장성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漢 장성을 동쪽으로 조금 더 연장시켰다. 2009년 9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길림성 장성조사 공작대가 장성을 새로이 찾아냈는데 장성이 기존의 신빈현에서 통화현까지 10.9km 연장된다고 발표하였다.²⁹⁾ 이는 무순지역에서부터 통화지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발견된 수십 개에 달하는 봉수유적을 장성으로 해석한 기존 연구성과³⁰⁾를 도입하여 해석한 결과였다. 이와 같은 발표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추진하는 후속 연구가 발표되었으며³¹⁾, 최근 개관한 길림성박물관에는 통화현지역 내 漢장성의 존재를 공식화한 패널이 제시되었다.³²⁾

하지만 이들 유적을 漢 장성으로 해석한 견해는 또 다른 논란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화현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까지 연결된다는 漢 장성라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이남 즉 청천강까지 연결된 장성라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地圖集』의 연구 성과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중국학계의 현황이라고 하겠다.

26)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181쪽(古長城은 대령강을 따라 대령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과 청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부근에 걸쳐있다).

27) 范恩寶, 2015, 「燕秦漢東北“長城”考論」 『中國邊疆史地研究』, 25-3, 48쪽. 중국 동북지역의 장성관련 유적을 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障塞와 烽燧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는 연진한 장새와 봉수선에 대하여 변한현이 소재한 평안북도 박천지역까지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8) 國家文物局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37쪽.

29) 『搜狐新聞』, 2009.09.23 “吉林境内现秦汉长城遗址 起点向东推进10.9公里”.

30) 蕭景全, 2000, 「遼東地區 燕秦漢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2000-3, 82쪽.

31) 李樹林·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 障塞遺址的 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2011-2.

李樹林·李妍, 2012, 「通化浑江流域燕秦汉辽东长城障塞调查」 『東北史地』, 2012-2.

이와 같은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이성제, 2014, 「중국장성조사 사업과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국역대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32) 2016년 10월 개관한 중국 吉林省博物院(長春市 소재)에는 통화현지역의 봉수와 성곽유적을 소개한 패널이 걸려있는데 「通化縣秦漢長城」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다. 설명에 따르면 통화현 진한장성을 2010년 국가장성지원 항목으로 공식 분류하였다고 한다.

33)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중에는 대령강장성과 연결시켜 북한의 자강도 자성군에서 12.8km에 달하는 장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2014년 가을에 이수림이 발견하였는데 이 장성은 문지3, 봉수지7, 정장지3 성보지3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李樹林·賈雲章, 2014, 「燕秦漢遼東長城形制考古調查研究」 『邊疆考古研究』, 16, 147쪽).

IV. 漢長城 東端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당시 漢나라 사람들은 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地圖集』에 표기된 漢 장성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사료가 있다. 孝文帝(B.C.202~B.C.157)가 흉노에 보내는 서신중에

“先帝께서 명하기를, 장성 이북의 활을 쏘며 살아가는 나라는 (흉노)선우의 명령을 받고, 장성(長城) 안의 의관을 정제하고 사는 땅은 짐이 다스린다.”³⁴⁾

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西漢 사람들이 인식했던 장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제는 漢고조 유방을 말한다. 장성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지역은 漢나라 영토, 장성의 외곽 지역은 흉노 땅이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장성은 당시에 分界線이자 국경선으로 기능하였음을 말해준다.

1. 漢長城 東端과 樂浪郡

『地圖集』제작과정에서 漢 장성 그리고 그 남쪽에 인접된 낙랑군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담기양의 낙랑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담기양은 중국의 역사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낙랑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역사상의 중국정권은 역사상의 중국범위 바깥지역까지도 관할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지역이 비록 역사상 중국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이 분명히 중국왕조의 판도 안에 속한다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漢왕조와 晉왕조사이에 일찍이 조선의 서북부에 樂浪, 帶方 등의 郡을 설치했었고, 漢왕조와 唐왕조 사이에 베트남의 북부에 ‘교지’, 구진, ‘일남’등의 郡을 설치했었다. 이들 郡 縣이 설치된 지역은 당연히 漢·晉·唐 왕조 강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 베트남이 비록 역사상의 중국범위 안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역사상의 樂浪, 교지 등 郡

34) “先帝制, 長城以北引弓之國受令單于, 長城以內冠帶之室朕亦制之”(『漢書』 권94上 匈奴列傳 64上).

을 漢, 唐 等 왕조의 영토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³⁵⁾

라고 하여 낙랑군을 중국의 역사경계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학계의 역사 인식은 B.C.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漢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기양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낙랑군과 한 장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地圖集』에 표기된 漢長城과 漢四郡의 모습을 대조하면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다. 漢長城은 요동군 지역을 포용하여 요동군의 동쪽 경계로서 표현되었다. 漢長城 외곽지역에는 현도군, 낙랑군이 표현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地圖集』에 제시된 서한시기 지도는 특정연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를 표준연대³⁶⁾라 하였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平帝 元始 2년(서기 2년), 행정구역의 경계는 成帝 元延 말엽(B.C. 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것이다.³⁷⁾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림 2>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漢장성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地圖集』에 표현된 漢長城 라인은 요동군과 현도군의 경계로서 또는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로서 나타났다. 그림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요동군의 동쪽경계선 상에 표기된 장성이 그 외곽지역을 방어하는 형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장성을 이민족 방어의 상징물이라고 전제할 때 요동군의 동쪽 외곽지역을 방어대상 즉 外敵으로서 설정한 모습이 되었다. 그 외곽지역에 현도군과 낙랑군이 표기된 것이다. 낙랑군과 현도군 지역을 외적이 살고 있는 이민족의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

과연 그럴까? 이 사실은 『地圖集』 편찬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는 담기양의 낙랑군에 대한 역사인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표현된 것이다. 중국학계의 역사인식은 B.C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漢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기양의 역사인식을 충족하자면 청천강까지 표현된 漢長城은 오류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표준연대로 설정한 기원전 8년 당시의 관점에서 요동군과 낙랑군의 군 경계선을 장성으로 표기한 것은 중국학계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地圖集』에 표현된 한 장성, 낙랑군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낙랑군의 위치 문제에 대한 관점이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35) “歷史上的中國政權 有時管到了 歷史上中國範圍以外的地方, 我們也得承認 這些地方 雖然不在歷史上的中國範圍之內, 確在幾個中國王朝版圖之內. 例如, 漢·晉間 曾在朝鮮西北部設置過樂浪·帶方等郡, 漢·唐間 曾在越南北部設置過交趾·九真·日南等郡, 這些設郡縣的地方, 當然是漢·晉·唐等王朝疆域的一部分. 所以朝鮮·越南雖然不在 歷史上的中國範圍之內, 但歷史上的樂浪·交趾等郡則 為漢·唐等王朝的領土. 那是無可諱言的” (譚其驤,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年 第1期).

36) 표준연대란 역사상 중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지도제작의 기준연대를 말한다.

37) 이에 비해 동한시기의 지도를 보면 변화상이 나타나는데 장성의 표현이 없어졌다. 제시된 행정구역의 기준연대는 順帝 永初5년(140년)의 상황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그렇다면 낙랑군의 위치를 현 평양지역 중심으로 비정하고 있는 학계의 통설은 잘못된 것일까? 둘째는 청천강까지 연결된 것 한 장성의 표현 문제이다. 한 장성이 실제로 존재한 것일까? 하는 관점이다.

필자는 둘째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문헌사료의 해석 문제

『地圖集』에서 漢長城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시키게 된 학술적 근거를 알아보자. 燕장성, 秦장성이 그랬듯이, 『地圖集』에서 長城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당시 왕조의 경계선이자 疆域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地圖集』에서 漢 장성의 경우는 위와 같은 장성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漢장성의 경우 왕조 경계를 표기한 것이 아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요동군의 동쪽 경계를 표기한 것이다. 漢 장성의 동쪽으로는 ‘현도군’, 漢 장성의 경계 남쪽으로는 ‘낙랑군’이 표기되었다. 따라서 『地圖集』에서 한반도내 漢 장성은 郡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성이 郡경계선으로 표현된 사실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렇다면 『地圖集』에서 漢長城을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된 학술적,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1 :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³⁸⁾

A-2 : 使蒙恬將三十萬，北逐戎狄，收河南。築長城，因地形，用制險塞，起臨洮，至遼東，
延袤萬餘里³⁹⁾

위 사료 A는 한반도까지 연결된 燕·秦 장성에 대한 사료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⁴⁰⁾ 『地圖集』에서 漢나라 장성 경계를 청천강까지 표기한 사료적 근거는 위 사료 A를 배경으로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燕장성의 동단은 양평, 秦장성의 동단은 요동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漢나라 장성이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

38) 『史記』列傳 卷110, 匈奴列傳50.

39) 『史記』88, 蒙恬列傳 28.

40) 하지만 사료 A를 해석하여 燕·秦 장성이 한반도까지 연결되었다는 중국학계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필자가 지적한 바 있다(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長城 考察』 『백산학보』 99).

료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청천강까지 연결된 漢長城의 존재여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圖集』을 비롯한 중국학계는 청천강까지 漢장성을 연결시켰다. 그렇다면 그렇게 연결시킨 학술적 근거는 무엇인가? 『地圖集』에서 그렇게 표기하게 된 사료적 배경은 다른데 있었다. 관련 사료 B를 제시한다.

B-1 : 自始燕時, 嘗略屬真番朝鮮 為置吏築鄣.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為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泃水為界 屬燕.⁴¹⁾

B-2 :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為界⁴²⁾

위의 사료 B-1은 漢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양국의 경계를 泃水라고 하였다. 사료 B-2는 전국시기 燕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양국 경계를 滿潘汗이라고 하였다. 『地圖集』은 사료 A에서 관련 논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사료B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漢장성을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그렇게 표기하게 된 상황을 알아보자. 첫째로, 『地圖集』은 요동고새를 복구하고 패수에 이르렀다는 B-1의 내용에서 ‘패수’를 한의 경계로 이해하였다. 그리고는 泃水の 위치를 청천강으로 비정하였다. 따라서 한나라와 고조선과의 경계는 청천강이 되었다.

둘째로, 『地圖集』은 B-2에 나타난 만반한에 대하여 요동군 속현중의 하나인 변한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변한에 대해서는 “番汗〈沛水出塞外, 西南入海〉”⁴³⁾라 하여 沛水가 변한현을 흐른다는 기록을 참조하였다. 이 沛水의 위치에 대하여 진풍이라는 학자의 주장⁴⁴⁾을 받아들여 대령강에다가 비정하였다. 그리고 泃水=청천강, 沛水=대령강이라는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변한현의 위치를 대령강 변에 소재한 박천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이후 1988년에 간행된 『地圖集』의 해설서⁴⁵⁾에서는 변한현의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하였다. 대령강 변의 박천지방에 위치한 ‘古博陵城’이 변한현의 행정치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⁶⁾ 『地圖集』은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漢 장성 라인을 청천강유역에까지 이르는 선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료 B를 비교해보면 고조선과의 국경은 燕(만반한), 漢(泃水)이다. 그런데 사료 B-1을 보면, 漢나라 때는 고조선과의 국경이 요동방면으로 후퇴하여 설정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

41) 『한서』 列傳 卷65, 朝鮮.

42) 『三國志』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30, 東夷 韓傳의 裴松之註.

43) 『漢書』 28下 地理志8 下 遼東郡.

44) 陳澧撰, 1872, 『漢書地理志水道圖說』, 開明書店.





45) 譚其驤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4쪽.

46)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일찌기 1930년대 이병도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李丙燾, 1933, 『泃水考』, 『靑丘學叢』13).

이 사료 상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만반한(燕)과 패수(漢)는 청천강, 박천지역과 같이 서로 인접하여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료 B는 고조선과 燕나라 혹은 秦나라와의 국경을 설명한 것이다. 위 사료에서 長城과 國境은 다른 용어이므로 서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위 사료 B는 장성의 존재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地圖集』은 사료 B에 나타난 고조선과 漢왕조 간의 국경을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장성으로 표현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漢 장성의 사료해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3. 장성유적의 實在 문제

『地圖集』 발간이후 중국학계의 주장은 대체로 漢長城이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한 『地圖集』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문제점이 있다. 먼저 장성 라인을 표현한 방식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地圖集』에서 장성을 표현한 방식은 두 가지이다. ‘’와 ‘’의 두 종류로 표현하였다. 이중에 청천강유역까지 연결된 장성은 ‘’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地圖集』의 해설내용 확인해보면, 고고학적으로 장성 遺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낸 것이다.⁴⁷⁾ 따라서 『地圖集』은 실증적으로 장성 遺址가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하여 長城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 필자는 『地圖集』보다 앞서 출판된 역사지도집을 단순 참조한 것⁴⁸⁾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적의 존재유무 및 장성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1975년 『地圖集』의 내부분이 발간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 견해차이가 나타났다. 다음 <그림 8>을 보자.

47) 『地圖集』 제 1책의 ‘總編例 11항’의 내용을 보면 ‘戰國시대, 秦왕조등의 長城과 邊塞를 표시하였는데, 遺址가 있는 것과 遺址가 남아있지 않은 것을 부호를 달리 표기하였다’라는 설명이 있다. 청천강유역 漢장성의 경우 燕장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표기하였다.

48)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長城 考察」 『백산학보』 99.



〈그림 8〉 좌 : 『地圖集』 1975년 내부본, 우 : 곽말약, 1979년, 중국사고지도집)

〈그림 8〉-좌는 1975년에 간행된 『地圖集』 내부간행본이다. 청천강까지 연결된 한 장성을 『地圖集』에서 확인해보면 1975년 내부간행본과 1982년 공식간행본의 경우 표현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현방식과 영역인식은 적어도 1975년 이후부터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우의 곽말약 지도집과 비교해 보면 장성라인, 표현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地圖集』 내부본의 경우 '□□□□'의 형태로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곽말약 지도집의 경우 '××××'의 형태로서 표현하였다. 그런데 圖例를 보면 『地圖集』 내부본의 경우엔 '長城'으로, 곽말약 지도집의 경우에는 '障塞'로 표기하고 있다. 곽말약은 장성과 장새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다. 『地圖集』의 간행시기(1975)를 감안해 볼 때 1979년에 간행된 郭沫若지도집은 『地圖集』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을 '障塞'로서 구분하여 표현하게 된 배경은 郭沫若지도집이 『地圖集』(1975년판)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장성라인의 통과선 및 표현방식의 차이가 나타난 현상을 비교해 볼 때 필자는 장성유적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사실 1982년 『地圖集』이 공식 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위의 장성 라인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 형태로서 표현하였다. 그런데 1987년 북한학계에서 대령강에 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사, 발표되었다. 이후 중국학계는 『地圖集』에 표기된 장성라인을 대령강 장성과 동일한 실체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학계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으로 계승되고 있다(〈그림 3〉 참조). 더군다나 중국학계는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燕·秦 장성의 실체와도 직

접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학계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점은 필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한바가 있다.⁴⁹⁾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령강장성은 고고학적으로 고구려 또는 고려시대의 장성유적에 해당하며, 중국 측이 주장하는 연·진장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령강장성의 실체를 중국왕조의 장성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중국학계의 관련연구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漢 장성과 대령강장성을 연관시키는 연구도 잘못된 것이다. 필자는 청천강까지 연결된 漢 장성 노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또 다른 중국 측 자료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9>를 보자.



<그림 9>『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左)와 『地圖集』(右)

<그림 9>-左는 2009년 國家文物局에서 공식 편찬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⁵⁰⁾이다. 이 책은 중국 고고학계의 최신성과를 종합하여 발간한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인데, 이 지도를 보면 漢 장성이 중국 요녕성 신빈현까지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漢 장성의 동단은 신빈현으로 새롭게 제시된 것이다. 이는 2009년 당시 중국학계의 공식적인 견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림 9>-右에 제시된 『地圖集』의 노선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하다. 이를 통해 『地圖集』에서 제시된 漢 장성노선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되고 있는 漢 장성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49)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燕·長城 고찰』 『백산학보』 99호, 백산학회.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長城 고찰』 『선사와 고대』 43호.

50) 國家文物局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37쪽.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반도내 漢 장성의 실존여부를 알아보자. 『地圖集』의 <그림 2>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10>이다.



<그림 10> 漢長城 東端 細部圖(『中國歷史地圖集』)

그림 <10>에 표기된 지명들을 주목해보자. 漢장성 경계의 남쪽으로는 ‘樂浪郡’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漢 장성이 끝나는 지점에는 ‘番汗’이라는 표기가 있다. ‘번한’의 북쪽을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대령강을 ‘沛水’로, ‘번한’의 남쪽을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청천강을 ‘沮水’로 표기하였다. 漢 장성과 그 주변의古지명을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番汗’은 서한 요동군소속의 ‘番汗縣’을 말한다. 이 그림대로라면 한나라 장성의 동단지점은 번한현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청천강유역에 자리한 번한현은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압록강에 인접한 지점에 ‘西安平,’ 그리고 그 북쪽지점에 ‘武次 东部都尉’라고 표기하였다. 이는 요동군

소속의 ‘西安平縣’과 요동군 동부도위부가 설치되었던 ‘武次縣’에 해당한다. 요동군 동부도위부를 압록강 북쪽지역에 비정하였다. 『地圖集』을 비롯한 중국학계는 요동군 동부도위부가 설치된 무차현의 위치를 요령성 봉성현에 소재한 평지성인 유가보고성으로 해석해왔다.⁵¹⁾ 그렇다면 무차현은 요동군의 동쪽변경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 그림대로라면 변한현은 요동군 동부도위인 무차현의 경계에서 멀리 벗어나 동남쪽의 외곽지역에 설치된 격이 된다. 이는 漢代 주로 변경지역에 설치되는 부도위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그 위치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으로 중국학계에서 이와 같은 『地圖集』의 문제점을 인식한 듯한 연구성과도 있다. 허지국은 종전 학계의 견해와는 다르게 무차현의 위치를 대령강변의 박천지역으로 비정하였다.⁵²⁾ 그는 동부도위부가 설치된 무차현의 위치를 박천지역의 박릉성으로 비정하였다. 나아가 변한현의 위치를 영변 세죽리 유적 부근으로 비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변한현을 영변지역으로 비정하게된 학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언뜻 『地圖集』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변한현을 청천강유역으로 비정한다는 점에서는 『地圖集』의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변한현의 위치는 어느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魏略』에 기록된 ‘滿潘汗’이 『漢書』지리지에 나타나는 요동군 소속의 ‘番汗縣’과 연관된다는 해석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음 사료 C를 보자.

C-1: 遼東郡(중략)縣十八, 襄平·新昌·無慮·望平·房·候城·遼陰·遼陽·險瀆·

居就·高顯·安市·武次·平郭·西安平·文·番汗·沓氏⁵³⁾

C-2: 遼東郡 十一城(중략)襄平·新昌·無慮·望平·候城·安市·平郭<有鐵>·西安

平·汶·番汗·沓氏⁵⁴⁾

위 사료 C는 요동군의 변천과정을 설명한다. 西漢의 요동군소속 18縣이 東漢시기에 이르러 11城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요동군의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고구려를 비롯

51) 譚其驥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2쪽.

崔玉寬, 1988, 『鳳城發現西漢武次縣城遺址』, 『中國文物報』16.

孫進己·馮永謙, 1988, 『東北歷史地理』卷1, 黑龍江人民出版社, 292~293쪽.

52) 許志國, 2010, 『遼北燕秦漢長城及相關遺蹟遺物的發現和研究』,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53)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 변한현에 <沛水出塞外, 西南入海>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54) 『後漢書』권30, 志23 郡國5 幽州 遼東郡.

한 주변 이민족의 등장에 따라 축소해가는 상황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兩 사서를 보면 서한 및 동한시기에 요동군소속의 文(汶)縣과 番汗縣이 나란히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위치가 서로 인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한 대 요동군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서부도위(무려 : 북진현 대량갑토성), 중부도위(후성 : 심양시), 동부도위(무차 : 봉성현 유가보고성)등의 部都尉가 배치되었다. 부도위는 주로 邊郡지역에 설치되었는데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구로 알려져 있다.⁵⁵⁾ 따라서 토착원주민의 거주지나 이민족과 직면하는 방향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⁵⁶⁾ 당시 漢의 요동군 지배 상황과 변한현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11>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西漢代 遼東郡의 部都尉와 文縣 그리고 『地圖集』의 변한현

55)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지배-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7 참조.

56) 권오중, 2004, 「漢代 邊郡의 部都尉」 『東洋史學研究』 88. 부도위의 임무는 지역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異民族을 관리, 통치하는 것이어서 문관직이 아니라 주로 무관직이 파견되었다. 일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동한시기 옥저 땅을 낙랑군 동부도위에 소속시켰다. 그 배경은 옥저지역에 설치된 현도군이 주변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자 현도군을 서북쪽으로 이주한데 따른 것이다(『後漢書』 권85 東夷列傳 75 東沃沮).

〈그림 11〉은 서한시기 요동군에 설치된 부도위를 나타낸 것이다. 漢代 요동군이 18현에서 11현으로 개폐과정을 거치는 과정⁵⁷⁾ 속에서 문현과 변한현은 『漢書』 지리지 및 『後漢書』 군국지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문현과 변한현은 서한, 동한대에 변함없이 요동군소속의 행정현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문현과 변한현은 이민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요동군 내부의 행정적 지배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동한대에 이르러 요동군의 도위부가 폐지되었다. 특히 동부도위가 설치되었던 무차현(현 봉성현 유가보고성)은 縣 자체가 아예 폐지되었다. 현으로서의 행정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무차현의 동쪽지역에 인접하여 살면서 계속 세력을 넓혀가던 고구려와의 갈등에 따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대 요동군의 행정적인 관할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료 C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문현과 변한현의 위치는 변경지역에 설치된 부도위 보다 내군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⁵⁸⁾ 필자는 변한현의 위치는 문현의 위치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문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지』 등의 이후 사서에 나타나는 사료를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營口市 탕지부근의 영수구고성⁵⁹⁾, 海城縣 절목성촌 한성유지⁶⁰⁾, 大石橋市 영안향 진보촌 한성유지⁶¹⁾ 등의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요동의 서쪽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문현과 나란히 기재된 변한현도 이 부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현의 위치를 청천강 주변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한현이 동부도위의 동남쪽으로 한참 벗어난 외곽지역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57) 東漢대에 이르러 행정구역의 조정과정에서 방현, 함독현은 요동속국으로, 후성현, 고현현, 요양현은 현도군으로 관할이 바뀌었으며, 거취현과 방현은 폐지되었다.

58) 동한이 멸망한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도 '변한현'은 사료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현의 기능이 폐지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관리상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59)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東北卷, 13쪽.

60) 孫進己·王綿厚主編, 1988,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296쪽, 379쪽.

61) 馮永謙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51~52쪽.

V. 맺음말

1982년 공식 간행된 『中國歷史地圖集』第2冊은 西漢시기 장성을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시켰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된 과정, 이후 중국학계의 연구동향,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낸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地圖集』에 청천강까지 연결된 西漢장성을 그리게 된 배경은 문헌사료를 비롯한 학술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까지 연결시켰던 先行의 역사지도집을 참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사실 요령성, 길림성지역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청천강까지 연결된 장성의 실체는 분명치 않다. 단적인 사례로서, 2009년에 중국문화물국에서 간행한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을 보면 漢장성의 동단을 요령성 신빈현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나아가 그 해 중국장성자원 조사과정에서 문물공작대는 고고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장성을 통화현까지 연장시켰다. 문제는 통화현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온 장성노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는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은 1987년 북한학계의 조사 성과를 왜곡한데서 기인한다. 대령강장성이다. 중국학계는 습관적으로 대령강장성을 漢 장성에 대한 실제 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령강장성을 실제 조사한 결과 고구려 및 고려시대에 축조된 유적으로 밝혀졌다.

『地圖集』에서 西漢장성의 동단지점으로 제시된 사료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西漢 장성의 동단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地圖集』은 漢과 고조선의 국경으로 나타난 사료를 논거로 삼아 해석하게 되었다. 漢長城 관련사료와 한과 고조선과의 國境관련 사료는 용어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별도의 내용이다. 나아가 漢 장성의 동단과 관련하여 비정한 변한현의 위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박천지역의 고박릉성으로 비정한 변한현의 위치는 한 대 요동군의 부도위 설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나아가 고박릉성은 고고학적으로 漢郡縣 유적이 아니다. 고려시대에 축조된 읍성류의 성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西漢장성을 표현한 『地圖集』의 표준연대가 있다. 행정구역 명칭(서기 2년), 행정구역 경계(B.C. 8년) 당시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地圖集』은 장성경계의 외곽지역에 현도군, 낙랑군 등을 표기하였다. 낙랑군, 현도군지역을 외적이 살고 있는 오랑개의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 중국학계는 B.C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한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地圖集』에 제시된 상황은 이를 부정한 모양새가 되었다.

토 론 문

- ‘와당으로 본 낙랑군’에 대한 논평
복기대 (인하대)
-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에 대한 논평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와당으로 본 낙랑군’에 대한 논평

복기대 (인하대)

『중국역사지도집』의 漢長城 동단과 낙랑군’에 대한 논평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I. 오늘 토론회가 갖는 3가지 중요한 의미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상고사 토론회에서 공석구교수가 발표하는 ‘『중국역사지도집』의 한 장성 동단과 낙랑군’이란 논문은 3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중국의 한나라는 시대적으로 우리의 고조선과 동일한 시대에 해당하고 낙랑군은 한 무제가 고조선의 서쪽을 침공하여 설치한 군현이다. 따라서 한 장성의 동단과 낙랑군의 위치를 밝히는 일은 서쪽으로 한나라와 국경을 마주했던 우리 고조선의 국경과 강역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은 강역문제로 귀결된다. 중국 동북방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지역의 역사, 영토주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이론의 요지이다. 따라서 한 장성의 동단과 낙랑군의 위치 문제를 논의하는 작업은 동북공정의 이론을 뒷받침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깨뜨리느냐하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서 좌우된다.

셋째 동북아역사재단은 애초에 동북공정을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정책연구기관이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장성 동단과 낙랑군’에 대해 발표, 토론하는 것은 일반 개인적인 학회차원의 학술토론회와는 그 성격과 의미와 비중이 다르다. 발표자의 책임도 무겁고 토론자의 어깨도 가볍지 않다.

오늘 토론회는 이런 3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성 발언으로 시간을 때울 수 없으며 화기에애한 논평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발표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Ⅱ. 『중국역사지도집』은 철저하게 중화중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저술된 자료

역사는 사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사실과 사관의 결합에 의한 산물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스스로 역사가 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史家의 손을 거쳐서 기록에 의해 역사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가의 사관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알게 모르게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중국역사지도집』은 철저하게 중화중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저술된 책이다. 한과 대립했던 흉노, 당과 대립했던 돌궐, 송과 대립했던 거란, 명과 대립했던 몽골, 여진, 저들은 사실 북방의 강자들로서 대륙의 남과 북에서 한, 당, 송, 명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중화중심주의 사관에서는 저들은 한낱 변방의 야만적인 오랑캐로 묘사되고 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는 동북방의 대표적인 강대국이었다. 특히 고조선은 발해만을 중심으로 중원을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위대한 나라였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중국에 유리하고 고조선에 불리한 자료를 인용하여 고조선을 청천강 이남의 초라한 변방국가로 왜곡해왔다. 모택동이 집권한 이후 이러한 중화중심주의 사관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지도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중국역사지도집』이다.

『중국역사지도집』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 제시된 내용이 중국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으로 작용해 왔다. 발표자도 중국의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이 연구결과가 확산, 내지는 재 확산된다는 점을, 북경시 국가박물관, 산서성박물관, 요양박물관, 길림성박물관 등의, 한나라 장성 동단을 한반도 청천강까지 표기한 현황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공정 이론을 일반화, 구체화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중국역사지도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Ⅲ. 발표자는 『중국역사지도집』에 대해 각론에서 반대하고 총론에서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역사지도집』은 중화사관에 입각하여 중국의 국익을 전제로 작성된 지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진 한 장성의 동단과 낙랑군을 바탕으로 고조선의 서쪽 강역과 한사군의 낙랑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며 사료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다만 고조선의 강역과 낙랑군을 밝히는데 있어 이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 철저한 사료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표자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한 장성 동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단원에서 지엽적인 비판을 하는데 머물고 있다. 즉 각론에서는 일부 비판을 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지도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 장성의 표시를 실선으로 표시했느냐 점선으로 표시했느냐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사기』, 『한서』 등의 사료에 한 장성의 동단으로 기술된 요동과 양평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는 데 집중해야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발표자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각론에서는 비판하지만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중국역사지도집』의 견해를 추종함으로써 결국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Ⅳ. 발표자가 보는 한 장성의 동단

『중국역사지도집』은 한나라시기의 장성이 동쪽으로 압록강을 넘어와서 청천강 유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즉 한나라 장성의 동쪽 끝이 청천강 유역으로서 한반도의 청천강 서쪽이 모두 한나라 강역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표자는 『중국역사지도집』의 이러한 견해에 찬동하지 않았다. “한나라 장성이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는 전혀 없다.” “청천강까지 연결시킨 한 장성의 사료해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발표자의 이러한 언급은 발표자

가 한 장성의 동단을 청천강으로 보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발표자가 한 장성의 동단을 청천강으로 보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점은 맺음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 장성의 동단과 관련하여 비정한 番汗縣의 위치(박천지역의 고 박릉성)는 문제가 있다. 변한현의 위치는 한 대 요동군의 部都尉 설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즉 “변한현은 요동군 東部都尉인 武次縣의 경계에서 멀리 벗어나 동남쪽의 외곽지역에 설치된 격이 된다. 이는 한 대 주로 변경지역에 설치되는 부도위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그 위치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발표자는 한 장성의 동단을 어디로 보았는가. “필자는 변한현의 위치는 文縣의 위치와 연결시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문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지』 등의 이후에 나타나는 사료를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요녕성 영구시, 해성현, 대석교시 등의 견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청천강에서 서쪽으로 수 백리 떨어진 곳인 요녕성의 요하 바로 동쪽 편에 위치해 있다.

『중국역사지도집』은 변한현을 청천강 유역으로 비정했는데 “문현과 나란히 기재된 변한현도 이 문현 부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즉 한 장성의 동쪽 끝은 청천강이 아니라 오늘날 요녕성 해성시, 영구시 일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발표자는 또 2009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편찬한 『중국문화지도집 요녕분책』에 한 장성이 중국 요녕성 신빈현까지 그려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역사지도집』에 제시된 한 장성 노선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신빈현은 현재 요녕성 무순시 관할로 요녕성 동부의 길림성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V. 논평자가 보는 한 장성의 동단

한국 강단사학의 일부학자들 가운데는 『중국역사지도집』이 주장하는 한 장성 동단 청천강 설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 이론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공교수는 한 장성 동단 청천강설을 반대하고 그보다 훨씬 서쪽인 요하 동쪽설을 주장한다. 이는 분명 진일보한 관점으로 받아드려진다. 다만 논평자가 보기에는 이 또한 올바른 견해는 아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한 장성은 진 장성의 서북쪽으로만 확대되었다

『史記』「大宛列傳」에는 “漢始築令居以西 初置酒泉郡 以通西北國” “敦煌置酒泉都尉 西至鹽水 往往有亭” “于是酒泉亭障 至玉門矣”라는 기록이 보인다. 『漢書』「張騫傳」에는 “擊破姑師 擄樓蘭王 酒泉列亭障 至玉門矣”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한 무제 때 亭, 障, 장성을 축조한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 보이는 둔황, 주천, 옥문 등은 모두 오늘날의 중국 서북쪽 감숙성 지방에 있는 지명들이다.

한나라 때 쌓은 한 장성은 주로 한 무제 때 새로 쌓았다. 그런데 한 장성은 중국의 서북쪽 지방으로 진시황의 만리장성보다 더 확대하여 새로 쌓았다는 것을 이러한 기록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나라시대에 동북쪽으로 만리장성을 연결하여 새로 장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은 서한, 동한 전 기간에 걸쳐서 찾아 볼 수 없다.

2. 한 장성이 서북쪽으로 확대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나라 이후 장성이 주로 서북쪽 방향으로 확대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흉노의 방어이다. 『史記』「匈奴列傳」에는 “元朔二年(서기전 127년) 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한 무제가 흉노를 공격하여 하남지역을 수복한 다음 북방에 장성을 쌓았고 또 진시황 시대 몽념이 쌓은 만리장성을 수리하여 보다 견고하게 조성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장성의 축조 목표가 서북방 흉노의 중원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이 잘 드러나 있다.

둘째는 비단길의 개척이다. 연 장성이나 진 장성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쌓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 장성은 다른 목적이 추가되어 있었다. 중국의 비단을 서방에 팔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가 바로 그것이다.

한 무제시기에 쌓은 장성, 정장, 봉수는 흉노의 침범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여기에 서방국가와의 경제무역, 문화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었

던 것이다.

그 당시에 이 길을 통하여 중국의 비단이 서방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의 모직품, 포도, 과일 등이 이 실크로드의 만리 장도를 따라 장안과 동남방의 군현에 수입되었다. 문화 예술 또한 이 길을 따라 교류하였다. 이 끝없이 펼쳐진 국제도로 실크로드 위에 건설된 장성, 정장, 봉수가 경제무역과 문화교류를 위해 내왕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서쪽 감숙성에서 동쪽으로 요동까지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한나라는 감숙성에서 서쪽으로 만리길을 열었다. 실크로드의 옛 길 위에는 한나라시대에 축조한 장성, 정장, 봉수의 유적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지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3. 한 무제가 동북방에 한사군을 설치했으나 장성을 새로 쌓지는 않았다

한 무제는 흉노를 공격하여 서북쪽으로 한나라 강역을 진시황시대보다 훨씬 넓혔다. 그리고 진시황의 만리장성에 연이어 서북쪽으로 한 장성을 새로 쌓았다.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침략하여 고조선의 서쪽 강역 일부를 빼앗아 이를 한의 군현으로 편입시켜 한사군을 설치했다.

한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遂定朝鮮爲四郡” 그러나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여 한사군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사군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한 무제가 하남지역을 빼앗아 북방에 성을 새로 축조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북지역은 새로 땅을 빼앗으면 반드시 거기에 방어를 위한 장성을 쌓았다. 그런데 한 무제는 동쪽으로 고조선 땅을 침략하여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한 장성을 새로 쌓지는 않았다.

한 무제가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거기에 한사군의 장성을 새로 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은 동쪽으로 지금의 요녕성 동쪽과 한반도에 걸쳐 설치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북성을 중심으로 그 북쪽과 동쪽에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진개가 쌓은 연북 장성, 뒤에 진시황이 몽념을 시켜서 연결시킨 만리장성이 있었다.

연의 전성기 소왕 때 진개가 고조선 땅을 빼앗아 요동까지 5군을 설치하고 여기에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진 제국 말엽 중원이 혼란에 빠지자 고조선은 이 기회를 틈타 다시 잃어버렸던 고토를 회복했다고 본다.

그런데 한 무제라는 한족의 영웅이 나타나서 고조선의 서쪽강역을 공격하여 연의 5군이 있던 지역을 다시 빼앗아 한사군을 설치했고, 이곳은 이미 연 장성, 즉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축조되어 있던 지역이므로 별도로 한사군의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4. 한 장성의 동단은 어디인가.

『사기』 「조선열전」에는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淇水爲界”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 초기 기존의 동쪽 강역은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 진시황시대보다 오히려 더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강역이 축소된 마당에 한 장성이 진 장성보다 동쪽으로 더 확대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한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하여 한사군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때 한사군지역에 한 장성을 새로 축조하지는 않았다. 한사군은 광개토태왕시대에 고구려에 의해 통일되었다.

한나라시대에 동북방에 새로 한 장성을 축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진시황의 만리장성 동단이 곧 한 장성의 동단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통일 후 진, 조, 연의 장성을 연결시켜서 쌓은 것인데 연나라가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연 장성의 동단이 곧 진 장성의 동단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한 장성의 동단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진 장성의 동단과 연 장성의 동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호 땅을 빼앗아 장성을 쌓았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연나라는 소왕시대에 북방을 개척하여 서쪽은 조양에서부터 동쪽은 양평까지 성을 새로 쌓았다. 양평은 연의 요동군에 소속된 현이고 요동군은 고조선과의 접경지대였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에 관한 기록은 『사기』 「진시황본기」, 「몽념열전」, 「육국표」 등에 보인다. 「몽념열전」에 만리장성을 설명하면서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까지 도달했는데 장장 만여 리에 걸쳐서 펼쳐졌다.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라고 말하고 있다.

만리장성의 서쪽 기점 臨洮는 지금의 중국 감숙성 성도 난주시 남쪽 洮河 유역에 있던 임조(민현)를 가리킨다.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요동은 바로 연나라시대의 고조선 접경지대에 위치한 요동군을 말한다. 연나라의 요동군이 진시황제가 6국을 통일한 후 쌓은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단이 되었다.

연 장성의 동단이 진 장성의 동단이 되었고 진 장성의 동단이 다시 한 장성의 동단이 되었

다. 연 장성, 진 장성, 한 장성은 왕조가 바뀌면서 서쪽 기점인 서단은 변화가 있었지만 동쪽 끝인 동단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연 장성의 동단 양평을 확인하면 한 장성의 위치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5. 연북장성의 동단 양평이 한 장성의 동단이다

1) 연나라 장성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오늘날의 하북성 서남쪽에 그 중심지가 있었다. 연나라는 전국 7웅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우리의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였다.

연나라에는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장성이 있었다. 하나는 하북성 서남쪽 역수유역에 있던 장성으로 이를 연남장성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하북성 동북쪽에 있었는데 이는 연북장성이라 호칭한다.

연남장성은 하북성 남쪽에 있던 조나라와 산동성 동쪽에 있던 제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이고 연북장성은 연나라 장수 진개가 동호를 공격하여 천리 땅을 빼앗은 다음 북호와 동호를 방어할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2) 연남장성의 서단 서수현 수성진

『사기』「장의열전」에 장의가 연 소왕을 만나 “秦下甲雲中九原 驅趙而攻燕 則易水長城 非大王之有也”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연 소왕시기에 역수유역 일대에 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전국시대에 장의가 6국을 돌아다니며 연횡설을 주장한 것은 연 소왕 원년(서기전 311)이다. 따라서 이 역수유역의 장성은 남쪽의 제나라와 조나라로부터 연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소왕시대 이전에 이미 축조했던 장성임을 알 수가 있다.

『水經注』에는 연남장성을 언급한 기록이 여러 군데 보인다. 易水 조항에 “易水又東屆關門城西南 卽燕之長城門也” 寇水 조항에 “寇水東北至長城 注于易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 대한 熊會貞의 주석에는 “長城在今易州西南十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연남장성의 서단은 어디인가. 『嘉慶重修一統志』 권14 保定府3, 古跡 조항에 “長城在安肅縣 西北二十五里 戰國時 燕趙分界處”라고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안숙현은 오늘날의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을 가리킨다. 서수현 서북쪽은 바로 오늘날의 역현 서남쪽에 해당한다. 여기가 바로 연나라 남쪽장성의 서단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남장성의 서단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진태강지리지』의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여기가 장성의 기점이다”라는 내용이다. 『서수현신지』 고적 조항에는 “옛 장성이 서수현의 서북쪽 25리에 에 있다. (古長城在縣西北二十五里)”라고 하였다.

현재 서수현 수성진 수성촌에는 하북성 중점문화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장성이 있다. 이곳이 바로 연나라 남쪽 장성 즉 연남장성의 서쪽 기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태강지리지』의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여기가 장성의 기점이다”라는 기록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3) 연남장성의 동단 대성현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이 연남장성의 서단이었다면 연남장성의 동단은 어디인가. 『수경주』寇水 조항의 “寇水東北至長城 注于易水”라는 옹회정의 주석에 이런 기록이 보인다. “燕之長城 西自今易州 安肅 容城境 東抵文安 文安之長城 特燕趙之東界”

이는 현재의 보정시 문안현이 연남장성의 동쪽 경계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문안현은 보정시 동쪽의 발해방향에 위치한 현으로 지금도 중국지도 상에서 그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다.

『嘉慶重修一統志』 권8 順天府3 古跡 조항에도 이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又有長城 在文安縣東南 接大城縣界 延袤幾百里 相傳燕趙分界處” 이는 문안현 동남쪽 대성현 접경지대가 연남장성의 동단이며, 연남장성은 서쪽 서수현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발해방향으로 대성현 접경지대까지 수 백리에 걸쳐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연남장성이 있었던 역현, 서수현, 용성현, 안신현, 문안현, 대성현은 중국지도 상에서 모두 그 지명의 확인이 가능하다. 하북성 보정시 서쪽 낭야산 부근에서 동쪽으로 발해방향으로 이러한 지명들이 일직선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오늘날의 하북성 역현의 서남쪽, 서수현의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안신현을 거쳐서, 문안현 동남쪽의 대성현 접경지대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대략 500여리에 달하는 장성이 축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연북장성의 서단 조양

연북장성에 관한 기록은 『사기』「흉노열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以拒胡” 연나라 장수 秦開가 동호를 공격하여 천리 땅을 빼앗아 하북성 서북쪽 조양에서 동북쪽 양평까지 1000여리에 걸쳐 쌓았던 장성을 말한다.

이 성의 축조연대에 관해서는 荊軻와 함께 진시황을 자살하는 데 참여한 秦舞陽이 진개의 손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건축 시기는 대략 연 효왕시대나 또는 연 희왕 즉위 초년(서기전 254)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연북장성의 기점은 造陽이라고 말하였는데 조양이 오늘날의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인가. 『사기집해』에서 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在上谷” 즉 “상곡군에 있다”라고 하였다. 한나라시대 상곡군의 치소는 지금의 하북성 회래현에 있었다.

조양이 현재의 하북성 장가구시 회래현 일대에 있었다는 것은 중국학계에서 공인된 견해이다. 연북장성의 서단 조양이 진, 한 대의 상곡군 지역이며 지금의 하북성 장가구시 일대라는 데 대해서는 학계가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5) 연북장성의 동단, 만번한과 양평

연남장성이 남쪽의 조나라와 제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이라면 연북장성은 동호를 방어할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전국책』에 의하면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북장성의 동단은 바로 고조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연북장성 동단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연나라 북쪽 장성의 동단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위략』의 기록에 근거해 연나라의 동쪽 경계 만번한을 북한의 청천강 유역으로 보고 요동군 양평현을 현재의 중국 요녕성 요양현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요동군의 속현인 변한현을 『위략』의 만번한으로 해석하여 나온 결론이다. 『중국역사지도집』이 연북장성의 동단을 청천강까지 끌어다 놓은 것도 『위략』의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략』은 3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위략』의 만번한은 『전국책』 「연책」, 『사기』 「연세가」, 『한서』, 『후한서』 등에는 그런 기록이 안 보이는데 500년 뒤 갑자기 『삼국지』 주석에서 배송지의 입을 빌어 튀어나왔다. 『위략』의 만번한은 사료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둘째 만번한이란 지명은 『위략』의 배송지 주석에만 등장하고 역사상 다른 문헌의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만번한’이라는 세 글자 가운데는 오, 탈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 역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실체가 불분명한 만번한이란 지명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청천강 유역에 비정한 것은 역사왜곡이다. 엄격히 말하면 동북지역의 역사주권을 탐낸 중국의 영토야욕이 빚어낸 결과이다.

연나라 장성의 동단을 보는 다른 하나의 관점은, 북위 역도원의 『수경주』, 당나라 두우의 『통전』, 『한서』 「원소열전」의 당 장회태자 주석에 의거해 연북장성의 동쪽 끝 양평을 지금의 하

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으로 보는 것이다.¹⁾

당나라 두우杜佑는『통전通典』에서 연나라의 요동군 치소 양평은 당나라시대 안동부지역이다(襄平卽遼東所理 今安東府)”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나라의 안동부는 쯤나라시대의 쯤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연나라 때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은 당나라시대 안동부지역이고 당나라시대 안동부는 진나라시대의 평주로서 이 3자가 동일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진나라시대의 평주가 양평이었다는 것은 북위시대 역도원의 『수경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상흠은 대요수가 “요동군의 양평현 서쪽을 경유한다(過遼東襄平縣西)”라고 말했는데 역도원은 이 상흠이 말한 양평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왕망시대에는 창평이라고 하였다. 옛 평주의 치소이다.(王莽之昌平也 故平州治)”

역도원의 『수경주』와 두우의 『통전』에 따르면 연, 진, 한시대의 요동군 양평과 위, 진시대의 평주는 동일한 지역이다. 특히 양평은 서진시대 평주의 치소로서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요동군 양평현이 평주에 있었다는 것은 『통전』, 『수경주』뿐만 아니라 『후한서』 「원소열전」의 주석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한다. 옛 성이 지금의 평주 노룡현 서남쪽에 있다.(襄平縣屬遼東郡 故城在今平州盧龍縣西南)”

이 기록은 특히 양평현의 옛 현성이 “평주 노룡현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여 노룡현이라는 구체적인 지명과 서남쪽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적시하여 말했다. 오늘날의 하북성 동남쪽 진황도시 노룡현의 서남쪽에 요동군 양평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 범엽이 쓴 『후한서』 「紀傳」 부분은 당 고종의 아들 章懷太子 李賢이 주석을 냈다.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 등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기록을 검토할 때 연 소왕시대에 5군의 설치와 함께 축조한 연 장성의 동단은 양평이고 그 양평은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 지역이 연북장성의 동단으로서 연과 고조선의 경계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6) 연북장성의 동단 양평이 한 장성의 동단,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때의 요동군은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하북성 동쪽에 있었고 거기서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였다. 그리고 양평현은 요동군의 치소 즉 군청소재지였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했지만 불과 15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만리장

1) 심백강, 「사고전서로 살펴 본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 『고조선과 연의 경계 만변한은 어디인가』 동북아역사재단, 2016, 9쪽~48쪽 참조.

성의 소유주가 한나라로 바뀌었다. 한나라는 성을 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멀쩡한 만리장성을 두고 굳이 새로 성을 쌓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 장성의 동단 양평, 진 만리장성의 동단 요동이 다시 한 장성의 동단이 되었던 것이다.

연나라 장성의 동단 양평은 오늘날의 하북성 진항도시 노룡현 서남쪽에 있었다는 것은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 등과 같은 사료적 가치가 확실한 여러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중국역사지도집』이 『위략』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번한을 청천강 서쪽지역으로 인정하여 연나라 강역도에서 연 장성을 청천강까지 끌어 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 장성, 한 장성의 동단을 모두 청천강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의 역사영토를 유린한 역사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강단사학이 이러한 중국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것은 식민사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강단사학이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표자는 한 장성 동단과 낙랑군의 위치를 밝히는데 있어 중화중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저술된 『중국역사지도집』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위에서 논평자가 인용한, 한 장성의 동단 양평이 하북성 진항도시 노룡현 서남쪽에 있다고 기록된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 등의 자료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Ⅵ. 발표자가 보는 한사군의 낙랑군

『중국역사지도집』은 한 장성의 동단은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시키고 장성 밖 동쪽에 현도군, 장성 밖 남쪽에 낙랑군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현도군 북쪽에 분홍색으로 한나라 강역표시를 하고 낙랑군 남쪽은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한나라 강역표시를 하였다.

이는 한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지역에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도군과 낙랑군은 강역표시만 하고 장성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발표자는 ‘한 장성 동단과 낙랑군’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역사지도집』에 표현된 한 장성, 낙랑군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낙랑군의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낙랑군이 현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위치했다

고 해석하는 학계의 통설은 잘못된 것일까. 둘째는 청천강까지 연결된 것으로 표현된 한 장성이 잘못 그려진 것일까. 필자는 둘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중국역사지도집』에서 장성의 동단이 청천강까지 연결된 것으로 그려진 한 장성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진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낙랑군이 현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위치했다고 해석하는 학계의 통설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발표자는 『중국역사지도집』에서 한 장성의 동단을 청천강 유역까지 연장시켜 그린 것은 비판했지만 낙랑군을 대동강 유역에 표기한 것은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다. 『중국역사지도집』이 한 장성의 동쪽에 현도군, 한 장성의 남쪽에 낙랑군을 표기한 것을 두고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도집』은 장성경계의 외곽지역에 현도군, 낙랑군 등을 표기하였다. 낙랑군, 현도군 지역을 외적이 살고 있는 오랑개의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 중국학계는 B.C 108년 이래의 낙랑군을 한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집』에 제시된 상황은 이를 부정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것은 발표자가 중대한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지도집』에 현도군의 북쪽과 낙랑군의 남쪽에 한나라 강역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성경계 외곽지역에 표기한 현도군, 낙랑군이 한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외적이 살고 있는 오랑개 땅으로 인식한 격이 되고 말았다”라는 발표자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지도집』이 현도군과 낙랑군의 경계선 상에 한나라의 강역표시를 하여 현도군과 낙랑군이 한나라의 강역 안에 위치해 있는 이상 “오랑개 땅으로 인식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착각에 의한 오류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은 단지 사소한 지엽적인 오류에 불과하다.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중대한 착각이자 근본적인 오류라고 하겠다.

Ⅷ. 논평자가 보는 한사군의 낙랑군

이병도는 「낙랑군고」 머리말에서 “낙랑군은 한 무제 원봉 3년(서기전 108) 위씨조선의 수도 왕험성(평양)을 함락하던 해에 진번, 임둔 2군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지금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였다.²⁾ 대동강 낙랑설은 이병도 이후 이기백, 이기동, 노태돈 등으로 계승되면서 강단사학의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강 낙랑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전한서』 「賈捐之傳」에 나오는 “東過礪石 以玄菟樂浪爲郡”이라는 11글자만 제대로 파악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결론이 난다. 가연지는 서한시기 한 무제와 동시대 사람이고 이 말은 한 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한 지 불과 50여년 뒤에 한 말이다.

『전한서』 「가연지전」은 한 무제가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나 요동반도에는 갈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북성에 갈석산이 있었다.

한 무제가 만일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면 수 천리 밖에 있는 갈석산을 특징적인 산으로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백두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거나 압록강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을 설치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산인 백두산을 거명하지 않고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을 들어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반도 북부일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산이 백두산이고 요녕성 일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 의무려산이다 그런데 동쪽으로 백두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거나 동쪽으로 의무려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전한서』 「가연지전」은 기록하고 있다. 이는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동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하겠다.

다만 하북성에는 고대에 두 개의 갈석산이 있었다. 하나는 전국시대에 하북성 남쪽 호타하 부근에 있던 갈석산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하북성 동쪽 진황도시 창려현에 있는 갈석산이다. 현재의 진황도시 창려현 갈석산은 동한시대에 왕망이 비로소 계석산으로 명명했다. 그러므로 한 무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 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할 때 지나갔던 갈

2) 이병도, 「낙랑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7

석산은 전국시대 연나라 남쪽 호타하 부근에 안문산과 이웃해 있던 갈석산이다.

전국시대에 하북성 남쪽에 갈석산이 있었다는 것은 『사기』 「소진열전」의 “연나라 남쪽에 호타하, 역수가 있다.” “연나라 남쪽에 갈석산, 안문산의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말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전국시대에 연나라 남쪽에 있던 갈석산이 지금의 어디인가. 오늘날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 일대에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고 여기에 갈석산이 있었다. 오늘날의 백석산, 낭아산이다. 동서를 가로 질러 길게 뻗은 이곳 갈석산은 역사적으로 화하와 만맥, 즉 중원의 한족과 동북의 동이를 가르는 분계선으로 작용해 왔다.

연나라와 고조선, 진나라와 고조선, 한나라와 고조선이 여기서 갈석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고 후대에 남쪽의 한족 송나라와 북쪽의 거란족 요나라가 국경선을 마주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한 무제는 고조선과 한의 경계선인 갈석산을 넘어와서 갈석산 동쪽 고조선의 서쪽 땅을 침략하여 여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사군의 낙랑군은 낙랑군 25개현 중의 하나인 수성현, 현재의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을 기준으로 그 동쪽으로 천진시, 당산시, 진황도시 일대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전한서』는 정사자료이고 “東過礪石 以玄菟樂浪爲郡”은 정사에 나오는 서한시대 사람 「가연지전」의 기록이다. 그러나 그동안 강단사학에서 대동강 낙랑설을 즐기치게 주장하면서 이런 자료를 인용하여 비판하거나 설명한 적은 없다. 발표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왜 강단사학은 낙랑군을 논하면서 이런 귀중한 자료는 제쳐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

Ⅷ. 한국의 강단사학에 보내는 주문

노태돈은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이란 논문에서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에 대해서 그간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설과 남만주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설이 견지되어왔다.”라고 전제한 뒤 “한대의 요동군이 오늘날의 요동지역에 있었고 그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지역에 있었다면 자연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은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였음이 분명해 진다”라

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연, 진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주제로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연, 진대의 장성의 동단에 대해선 그간 세 가지 견해가 견지되어 왔다. 즉 요동설, 낙랑군 수성현설, 요서설 등이다”라고 말한 뒤 결론에서 “진장성의 동단은 『사기』, 『한서』의 기록과 현전하는 장성유지를 통해 볼때 요동설이 타당하다. 이렇듯 진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면 진, 한의 요동군은 지금의 요동지역에 있었던 것이 되며 낙랑군은 자연 그 동쪽인 한반도 서북부 지역임이 분명해진다.”라고 하였다.³⁾

노태돈의 주장에 따르면 요동군의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한 대의 요동군이 오늘날의 요하동쪽 요동에 있었다고 보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낙랑군이 한반도 서북지역에 위치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진, 한 대의 요동군이 지금의 요녕성 요하동쪽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논평자는 요동군 서안평과 관련하여 새로운 자료 하나를 공개하고자 한다. 『요사』 「지리지」 上京道 臨潢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 西安平之地 新莽曰 北安平”

요나라시대의 상경 임황부가 어디인가.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 파림좌기 임동진 남쪽 교외가 이 지역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노태돈이 한 대 요동군 서안평현을 압록강 하류지역으로 본 것과는 그 내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 『요사』와 노태돈 이 양자 중에 어느 설이 역사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논평자가 보기에는 『요사』의 설이 사실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이유는 첫째 왕망은 서안평을 북안평으로 명칭을 바꿨다. 만일 서안평이 노태돈의 주장대로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면 압록강은 중원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북안평이란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한서』, 『후한서』에 의하면 지금의 산둥성 쪽에 淄川國의 속현으로 東安平縣이 있었다. 한반도 압록강 유역은 중원에서 산둥성보다 더 동쪽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던 현이 방위상으로 볼때 서안평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요사』에서 말하는 상경 임황부는 지금의 내몽고 적봉시 지역이다. 산둥성에서 볼때 서쪽에 해당하는 만큼 서안평현이 될 수 있다. 또 중원에서 보면 북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왕망이 북안평으로 이름을 고친 것도 지리적 위치와 부합된다.

그리고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이 현재의 요녕성 요양이 아니라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이라는 사실이 『통전』, 『수경주』, 『후한서주』 등에 의해 새로 밝혀졌다. 요동군의 치소

3) 노태돈, 「고조선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10

가 하북성 동쪽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 일대에 있었다면 그 속현의 하나인 서안평현이 수천 리 떨어진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기보다는 하북성 진황도시 북쪽과 인접한 내몽고 적봉시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오늘날 『요사』의 사료적 가치를 폄하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역사사실에 근접한 것이 『요사』 사료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강단사학은 지난 광복70년 동안 요동군이나 낙랑군에 대해 무수히 많은 논문을 발표 해왔다. 그러나 『요사』의 이런 기록을 참고하여 요동군과 서안평을 논의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우리역사에 유리한 자료는 은폐하고 우리역사에 불리한, 일본인 학자가 제시해준 몇몇 참고자료를 가지고 70년간 우려먹으면서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온 것이 그동안 한국의 강단사학이 걸어온 길이 아닌가.

논평자는 한국의 강단사학이 지금까지의 역사관과 학문자세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문헌사학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한다. 열린 자세로 이렇게 앞으로 10년만 지속한다면 한국의 역사학은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학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